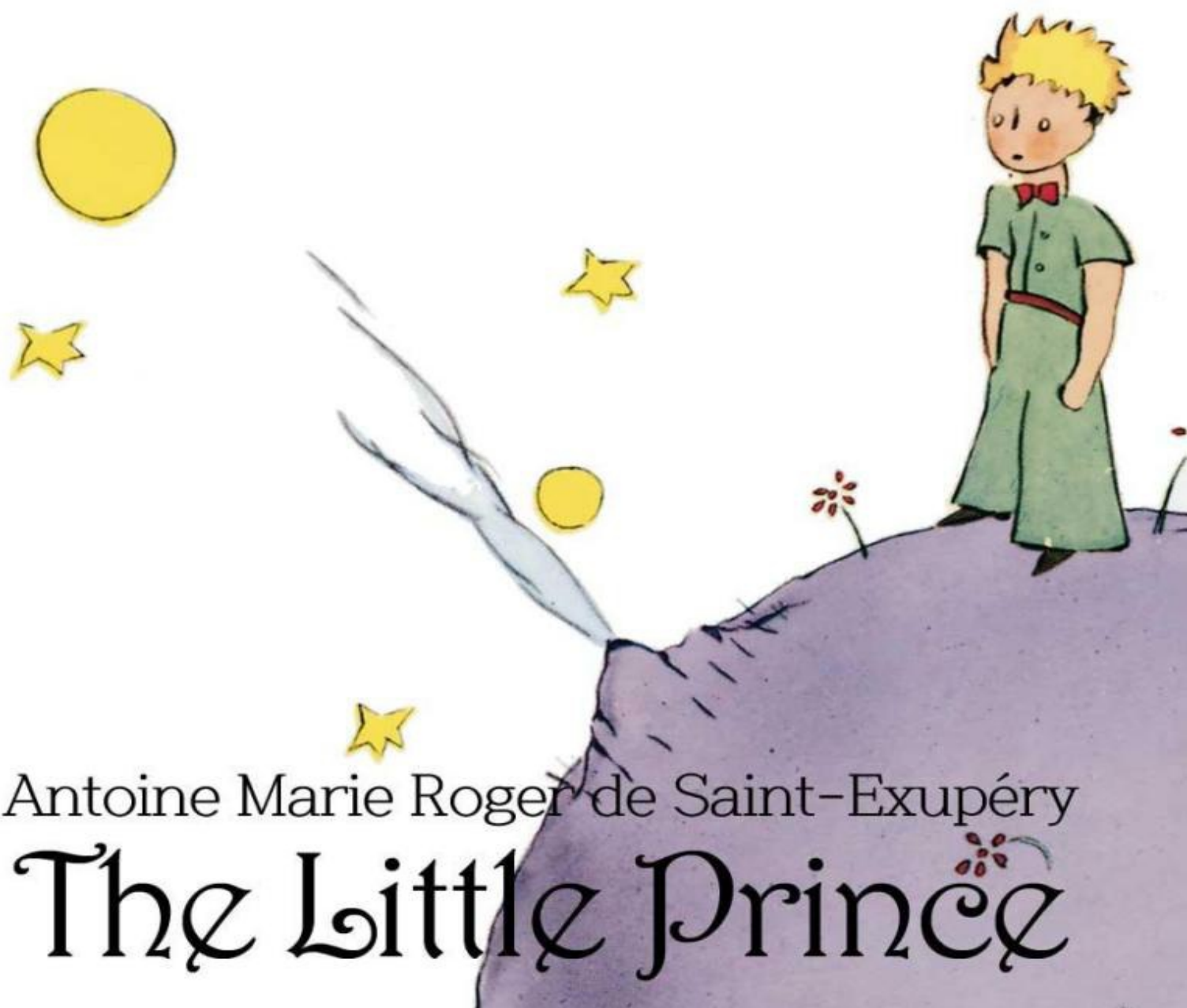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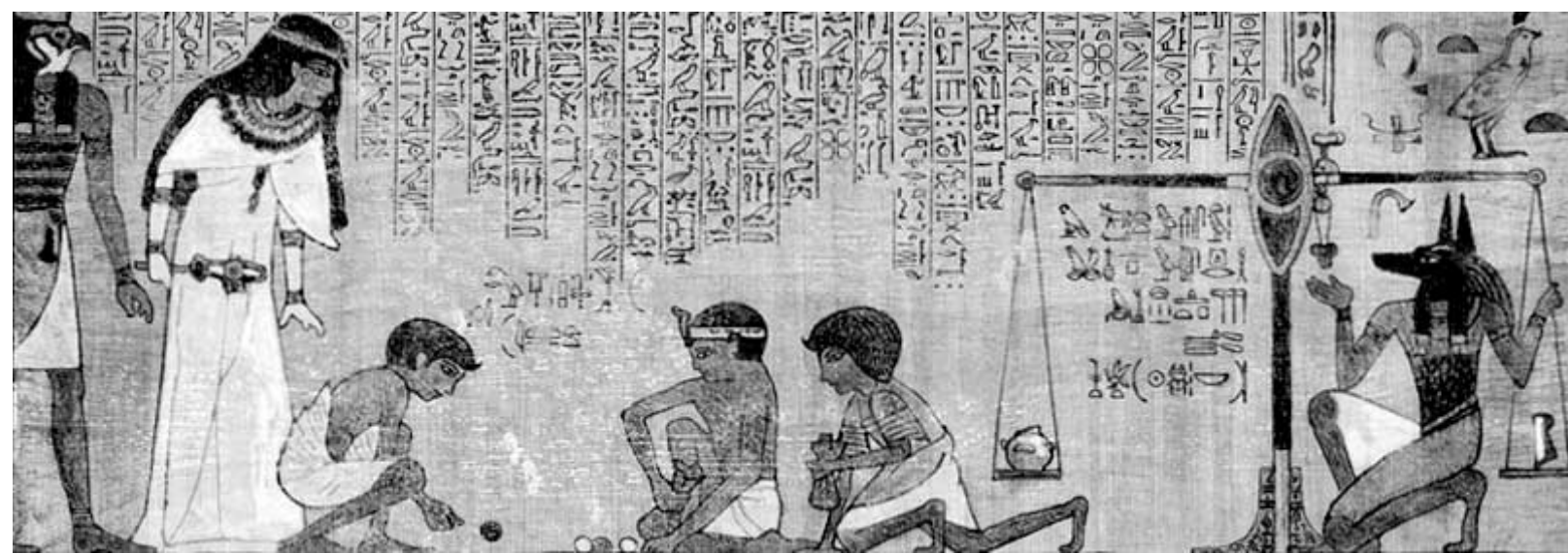
어린왕자

생텍쥐페리



Antoine Marie Roger de Saint-Exupéry

The Little Prince



● Infomation



독자의 마음을 읽는 고품격 **EPUB** 제작 서비스!

표준 epub형식을 완벽하게 만족시킴과 동시에 미려하고 짜임새있는 구성으로 독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표준 규약을 만족시킨다고 모두 같은 전자책이 아닙니다. 기술적인 요소는 원활한 이용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일 뿐 책을 읽는 독자를 고려한 EPUB 전자책은 숙련되고 독서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작업자로부터 나옵니다. 10년 이상의 전자책 서비스를 통하여 독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제작자가 온전한 한 권 한 권의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ndesign, Quark, xml 등 모든 자료로부터 고품질의 EPUB ebook을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자책 제작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십시오.

- * 전화 : 010-2397-4450
- * 이메일 : kshph2004@naver.com

어린 왕자

생텍쥐페리

출판사



● 도서정보

도서명 : 어린왕자

지은이 : 생텍쥐페리

옮긴이 :

펴낸곳 :

ebook제작 :

ebook제작일 :

이 전자책은 저작권이 만료된 텍스트로 작업하였으며 이용과 배포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내용을 해체하여 재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작가와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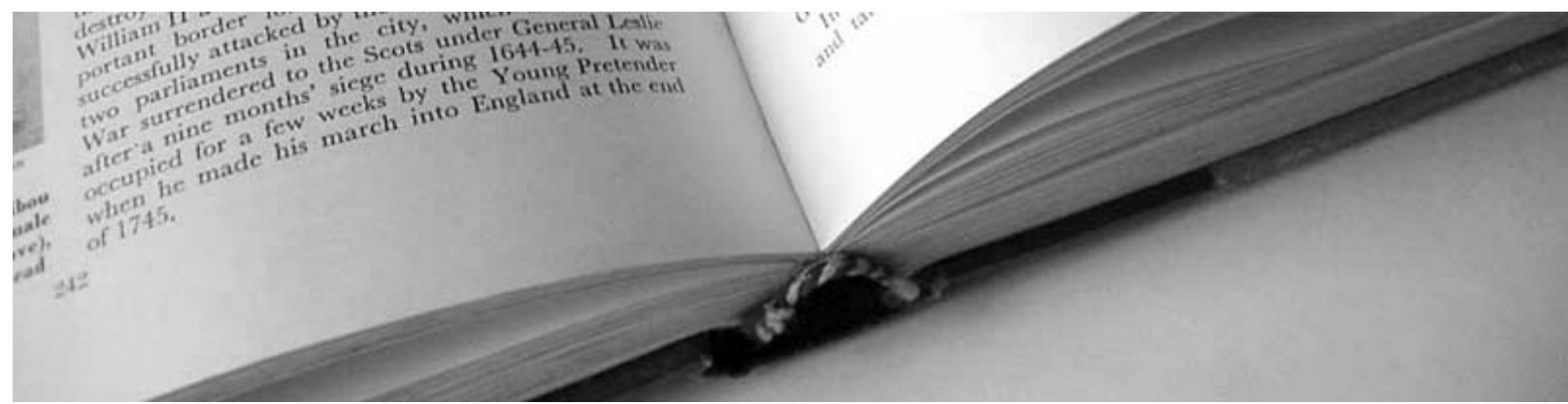
생텍쥐페리《어린 왕자》(1943)로 유명한 프랑스의 소설가. 진정한 의미의 삶을 개개 인간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정신적 유대에서 찾으려 했다. 작품은 《남방 우편기》,《야간비행》(페미나상 수상),《인간의 대지》등이다.

리옹(Lyons) 출생. 옛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1920년 징병으로 공군에 입대하여 조종사 훈련을 받았다. 제대 후 자동차공장 등 여러 직종을 전전하다가, 평범한 사회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행동적인 인생을 개척하고자 1926년부터 위험이 뒤따르는 초기 우편비행 사업에 가담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군용기 조종사로 종군, 대전 말기에 정찰비행 중 행방불명이 되었다.

최초의 본격적인 작품 《남방 우편기 Courrier Sud》

(1929)에서 유작(遺作) 《성채(城砦) Citadelle》(1948)에 이르는 모든 작품은 행동을 통한 명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언제나 어려움과 역경과의 싸움에서 인간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의의를 찾아 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항공에 근무하던 시기의 경험을 토대로 한 《야간비행 Vol de nuit》(1931)은 행동적인 문학으로서 A.지드의 격찬을 받았으며 페미나상(賞)을 받았다.

그가 추구한 진정한 의미의 삶은 개개의 인간 존재가 아니라, 개적(個的) 존재를 초월한, 즉 사람과 사람을 맺어주는 정신적 유대에서 찾으려 했다는 데 있다. 《인간의 대지 Terre des hommes》(1939) 《전투 조종사 Pilote de guerre》(1942)에서는 이러한 그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계와 동료 비행사, 그리고 임무·의무·조국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깊은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에서 발표한 《어린 왕자 Le Petit Prince》(1943)는 작자 자신이 아름다운 삽화를 넣어서 독특한 시적 세계를 이루고 있다.



●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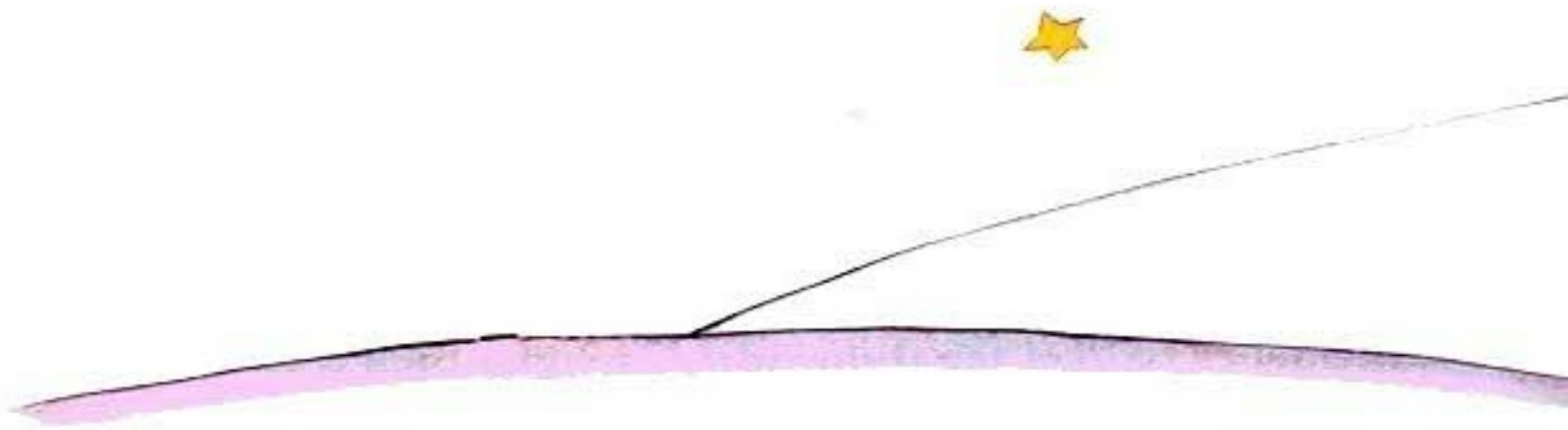
어린왕자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어린왕자

“그래.” 여우가 말했다. “넌 아직 나에게 수많은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소년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난 너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난 너에게 수많은 다른 여우와 똑같은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1.



내가 여섯 살 적에 한번은 “체험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원시림에 관한 책에서 기막힌 그림 하나를 본 적이 있다. 맹수를 집어삼키고 있는 보아 구렁이 그림이었다. 그것을 옮겨 그리면 이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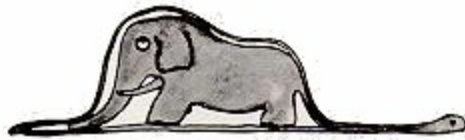
그 책에는 이렇게 써어 있었다. “보아 구렁이는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집어삼킨다. 그리고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여섯 달 동안 잠을 자면서 그것을 소화시킨다.”

나는 그래서 밀림 속에서의 모험에 대해 한참 생각해 보고 난 끝에 색연필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내 생애 첫 번째 그림을 그려보았다. 나의 그림 제 1호였다. 그것은 이런 그림이었다.



나는 그 걸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 주면서 내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니?”하고 대답했다.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 구렁이였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 구렁이의 속을 그렸다. 어른들은 언제나 설명을 해주어야만 한다. 나의 그림 제 2호는 이러했다.



어른들은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는 보아 구렁이의 그림들은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 역사, 계산, 그리고 문법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충고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여섯 살 적에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해 버렸다. 내 그림 제 1호와 제 2호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데 낙심해 버렸던 것이다. 어른들은 언제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자꾸자꾸 설명을 해주어야 하니 맥빠지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나는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세계의 여기저기 거의 안 가본 데 없이 나는 날아다녔다. 그러니 지리는 정말로 많은 도움을 준 셈이었다. 한번 슬쩍 보고도 중국과 애리조나를 나는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밤에 길을 잃었을 때 아주 유용한 일이다.

나는 그리하여 일생 동안 수없이 많은 점잖은 사람들과 수많은 접촉을 가져왔다. 어른들 틈에서 많이 살아온 것이다. 나는 가까이서 그들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내 생각이 나아진 건 없었다.

조금 총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면 나는 늘 간직해 오고 있던 예의 나의 그림 제 1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시험해 보고는 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뭘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으레 그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보아 구렁이도 원시림도 별들도 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 브리지니 골프니 정치니 벅타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어른은 매우 착실한 청년을 알게 된 것을 몹시 기뻐했다.



2.

그래서 여섯 해 전에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킬 때까지 나는 마음을 털어놓고 진정어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대를 갖지 못한 채 홀로 살아왔다. 내 비행기의 모터가 한 군데 부서져 버린 것이다. 기사도 승객도 없었으므로 나는 혼자서 어려운 수선을 시도해 보려는 채비를 갖추었다. 그것은 나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 이렛날 동안 마실 수 있는 물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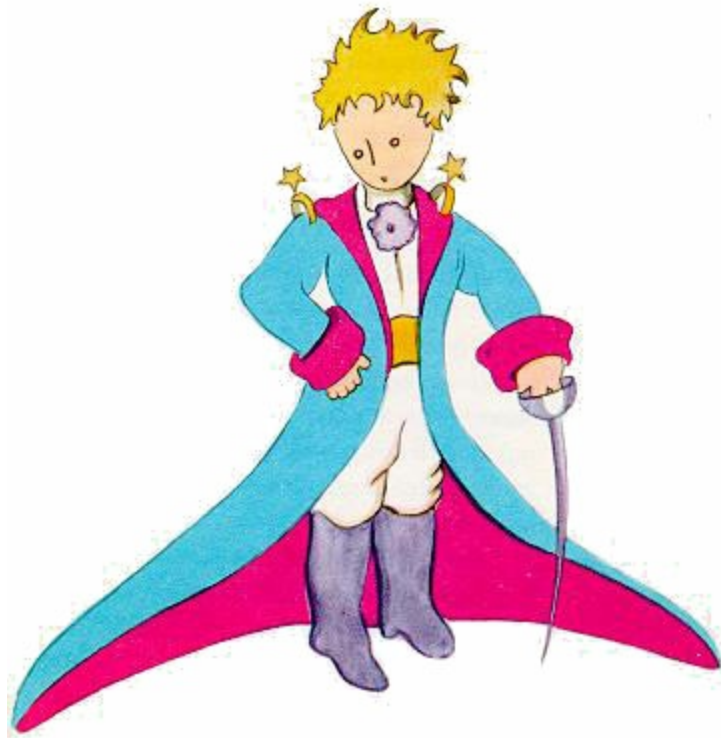
첫날밤 나는 사람 사는 고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에서 잠이 들었다. 대양 한가운데에 떠 있는 뗏목 위의 표류자보다 나는 더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 야릇한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말했다.

“양 한 마리를 그려 줘!”

“뭐라고?”

“양 한 마리를 그려 줘.”

나는 기겁을 해서 후다닥 일어섰다. 눈을 막 비벼 보았다. 사방을 잘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상하게 생긴 조그만 사내아이가 나를 심각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훗날 내가 그를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잘된 것이 여기 있다. 그러나 물론 나의 그림은 모델보다는 훨씬 덜 매력적이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여섯 살 적에 어른들이 화가로 출세할 수 없다고 나를 낙심시켰기 때문에 나는 속이 보이지 않거나 보이거나 하는 보아 구렁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리는 연습을 하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어쨌든 나는 그의 느닷없는 출현에 나무도 놀라서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사람 사는 고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 주길 바란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아 보였고 피곤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다. 사람 사는 고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 한 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 같은 구석이라고는 없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내가 말을 걸었다.

“그런데..... 왜 그러지?”

그러자 그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나 되는 듯이 소곤소곤 다시 되풀이해 말했다.

“부탁이야..... 양을 한 마리 그려 줘.....”

너무도 인상깊은 신비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거기에 순순히 따르게 마련이다. 사람 사는 고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죽음의 위험을 마주하고 있는 중에 참 엉뚱한 짓이라고 느껴지기는 했지만 나는 포켓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내가 공부한 것은 지리, 역사, 계산, 문법이라는 생각이 나서 그 어린 소년에게, 나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조금 기분이 나빠져서)말 했다. 그는 대답했다.

“괜찮아. 양을 한 마리 그려 줘.”

양은 한 번도 그려 본 적이 없었으므로 나는 그를 위해 내가 그릴 수 있는 단 두 가지 그림 중의 하나를 다시 그려 주었다.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 구렁이의 그림 말이다. 그러자 그 어린 소년은, “아냐, 아냐, 보아 구렁이 속의 코끼리는 싫어. 보아 구렁이는 아주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아주 거추장스럽고.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조그맣거든. 내게는 양이 필요해. 양을 그려 줘”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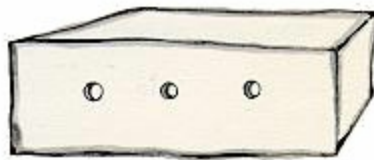
그는 주의 깊게 바라보더니,
“안돼! 그 양은 벌써 병이 들었는 걸”하고 말했다.”
“다시 하나 그려 줘.”
나는 또 그렸다.



내 친구는 너그러운 모습으로 상냥한 미소를 지었다.
“봐.....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잖아. 뿔이 있으니까.....”그래서 난 또다시 그렸다. 그러나 그것도 앞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거절을 당했다.



“그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나는 모터의 분해를 서둘러야 했으므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되는데로 끄적거리려 놓고는 한 마디 툭 던졌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있어.”
그러자 나의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환히 밝아지는 걸 보고 나는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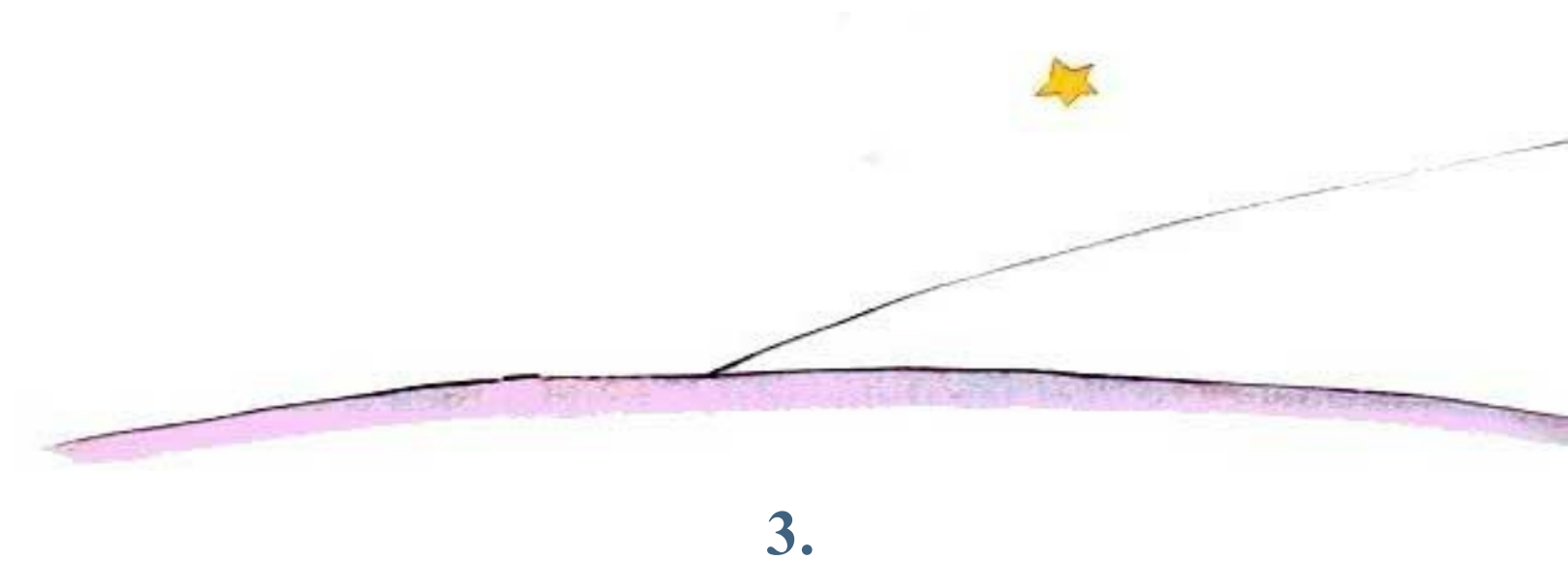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이 양에게 풀을 많이 주어야 해?”“왜 그런 걸 묻지?”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거기 있는 걸로 아마 충분할 거다. 네게 준 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그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다지 작지도 않은 걸. 어머! 잠들었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3.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데는 오랜 시일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것을 물어보면서도 내 질문에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았다. 그가 우연히 한 말들이 차츰차츰 모든 것을 알게 해주었다. 가령, 내 비행기를 처음으로 보았을 때(내 비행기는 그리지 않으려다. 그것은 나에게 너무도 복잡한 그림이니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이다.

“이 물건은 도대체 뭐야?”

“그건 물건이 아니야. 그건 날아다니는 거야. 비행기지. 내 비행기야.”내가 날아다닌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면서 나는 자랑스러워졌다. 그랬더니 그는 소리쳤다.

“뭘!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구?”

“그래.”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야! 그거 참 재미있다.....”

그리고는 어린 왕자는 유쾌하게 까르르 웃어대었으므로 나는 기분이 몹시 언짢아졌다. 내 불행을 진지하게 생각해 주지 않은 것은 나는 싫기 때문이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잖아! 어느 별에서 왔어?”나는 문득 그의 존재의 신비로움을 이해하는 데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걸 깨닫고 갑자기 물었다.

“그럼 넌 다름 별에서 왔니?”

그러나 그는 대답을 하지 않고 내 비행기를 바라보며 신중한 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걸 타고서는 멀리서 오지는 못했겠군.....”

그리고는 한참 동안 깊이 생각에 잠기더니 포켓에서 내가 그려 준 양의 그림을 꺼내서는 그 보물을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다른 별들”이라는, 그가 슬쩍 내비친 비밀에 내가 얼마나 호기심으로 몸이 달았겠는가를 여러분은 짐작하리라.

“얘, 너는 어디서 왔지? 네 집이란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이니? 내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니?”

그는 말없이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다.

“아저씨가 준 상자가 밤에는 집이 될 테니까 잘됐어.”“그렇고말고, 그리고 네가 착하게만 하면, 밤에 양을 매 놓을 수 있는 고삐를 줄게. 말뚝도 주고.”

그 제안은 어린 왕자를 몹시 놀라게 한 듯했다.

“매 놓다니! 참 이상한 생각이네.....”

“하지만 매 놓지 않으면 아무 데나 가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텐데.....”그러자 내 친구는 다시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가긴 어디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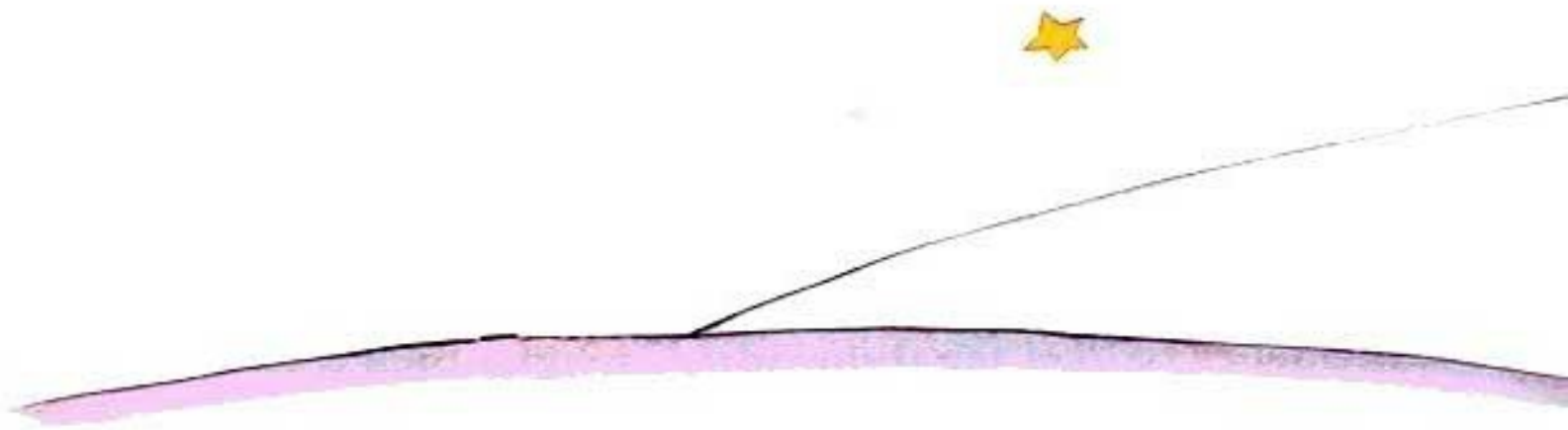
“어디든지 곧장 앞으로.....”

그랬더니 어린 왕자는 진지한 빛으로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그리고는 조금 서글픈 기분이 들었는지 다시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가도 멀리 갈 수가 없는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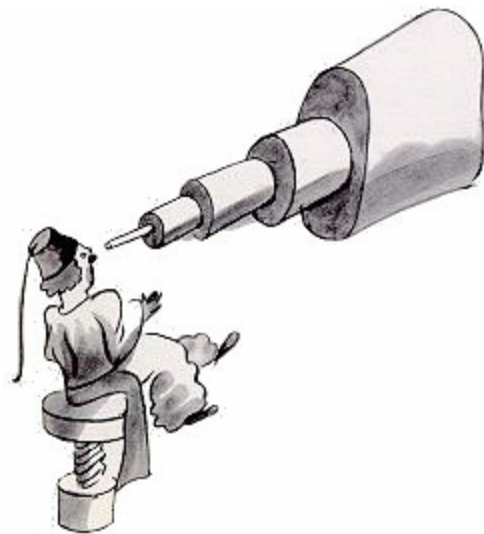


4.



나는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사는 별이 집 한 채보다 클까말까 하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지구, 목성, 화성, 금

성같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 놓은 커다란 떠돌이별들 말고도 수백 개의 다른 떠돌이별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너무도 작아서 망원경으로도 잡히기 힘들 정도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천문학자가 그런 별을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매겨 준다. 이를테면, “소혹성(小惑星) 3251호”라는 식으로 부르는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이 소혹성 B612호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 혹성은 딱 한 번, 1909년에 터키 천문학자에 의해 망원경에 잡힌 적이 있었다.



그 당시 그는 국제 천문학회에서 자신의 발견을 훌륭히 증명해 보였었다. 그러나 그가 입은 옷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었다. 어른들이란 모두 이런 식이다.



터키의 한 독재자가 국민들에게 서양식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고 강요한 것은 소혹성 B612호의 명성을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매우 맛있는 옷을 입고 다시 증명을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들 그의 말을 믿었다.

내가 소혹성 B612호에 관해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 번호까지 알려주는 것은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할 때면 그들은 가장 긴요한 것은 물어 보는 적이 없다. “그 애 목소리는 어떨지? 그 애가 좋아하는 놀이는 무엇이지? 나비를 수집하는지?”라는 말을 그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나이가 몇이지? 형제는 몇이고? 체중은 얼마지? 아버지 수입은 얼마야?”하고 그들은 묻는다. 그제야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턱에서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분홍빛의 벽돌집을 보았어요”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십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라고 말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은 “아, 참 좋은 집이구나!”하고 소리친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매혹적이었고, 웃었고,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싶어했다는 것이 그가 이 세상에 있었던 증거야. 어떤 사람이 양을 갖고 싶어한다면 그건 그가 이 세상에 있는 증거야”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여러분을 어린아이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떠난 별은 소혹성 B612호입니다”라고 말하면 수궁을 하고 더 이상 질문을 해대며 귀찮게 굴지도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다 그런 것이다. 그들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항상 너그럽게 대해야만 한다.

하지만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는 숫자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 같은 식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옛날에 저보다 좀더 클까말까 한 별에서 살고 있는 어린 왕자가 있었는데 그는 친구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겐 그게 훨씬 더 진실된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책을 건성으로 읽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이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깊은 슬픔을 느낀다. 내 친구가 그의 양과 함께 떠나가 버린 지도 벌써 여섯 해가 된다. 내가 여기서 그를 묘사해 보려 애쓰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한 사람의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니까. 누구나 다 친구를 가져보는 것은 아니다. 그를 잊는다

면 나도 숫자밖에는 흥미가 없는 어른들과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내가 그림물감 한 상자와 연필을 산 것은 이런 까닭에서였다. 여섯 살 적에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 구렁이 이외에는 그려 본 일이 없는 사람이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정말 힘든 노릇이다.! 물론 되도록 실물에 가까운 초상화를 그려 보려고 노력은 하겠다. 하지만 꼭 성공하리라는 자신은 없다. 어떤 그림은 괜찮은데 또 어떤 그림은 닳지를 았다. 키에 있어서도 조금씩 틀리고는 한다. 여기서는 어린 왕자가 너무 크고 저기서는 너무 작다. 그의 옷색깔에 대해서 역시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저렇게 더듬더듬 그려 본다. 보다 중요한 어떤 부분을 잘못 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해 주어야 한다. 내 친구는 설명을 해주는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불행히도 나는 상자 안쪽에 있는 양을 볼 줄 모르는 것이다. 나도 조금은 어른들과 비슷한지도 모를 일이다. 아마 늙은 모양이다.



5.

나는 별이니 출발이니 여행에 대해 날마다 조금씩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무심결에 하는 말들을 통해 서서히 그렇게 된 것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바오밥나무의 비극을 알게 된 것도 그렇게 해서였다.

이번에도 역시 양의 덕택이었다. 심각한 의문이 생긴 듯이 어린 왕자가 느닷없이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이지?”

“그럼, 정말이지.”

“아! 그럼 잘됐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왜 그리 중요한 사실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다.

“그럼 바오밥나무도 먹겠지?”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이나 거대한 나무고, 한 떼의 코끼리를 데려간다 해도 바오밥나무 한 그루도 다 먹어치우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한 때의 코끼리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으며,
“코끼리들을 포개 놓아야겠네.....”하고 말했다.
그런데 그가 총명하게도 이런 말을 했다.

“바오밥나무도 커다랄게 자라기 전에는 작은 나무지?”“물론이지! 그런데 왜 양이 바오밥나무를 먹어야 된다는 거지?”어린 왕자는 “아이 참!”하며, 그것은 자명한 이치라는 듯이 대꾸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그 수수께끼를 푸느라고 한참 머리를 짜내야만 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다른 모든 별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풀들과 나쁜 풀들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좋은 풀들의 좋은 씨앗들과 나쁜 풀들의 나쁜 씨앗들이 있었다. 하지만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땅 속 은밀한 곳에서 잠들어 있다가 그중 하나가 갑작스레 잠에서 깨어나고 싶은 기분에 사로잡힌다. 그러면 그것은 기지개를 켜고, 아무 해가 없는 귀엽고 조그마한 싹을 태양을 향해 쏘옥 내민다. 그것이 무나 장미의 싹이면 그대로 내버려두어도 된다.



하지만 나쁜 식물일 경우에는 눈에 띄는 대로 뽑아 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앗들이 있었다..... 바오밥나무의 씨앗이었다. 그 별의 땅은 바오밥나무 씨앗 투성이었다. 그런데 바오밥나무는 너무 늦게 손을 대면 영영 없애 버릴 수가 없게 된다. 별을 온통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다. 뿌리로 별에 구멍을 뚫는 것이다. 그래서 별이 너무 작는데 바오밥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이 산산조각이 나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건 기율(紀律)의 문제야.” 훗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침에 몸단장을 하고 나면 정성들여 별의 몸단장을 해주어야 해. 규칙적으로 신경을 써서 장미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즉시 곧

그 바오밥나무를 뽑아 버려야 하거든. 바오밥나무는 아주 어렸을 때에는 장미와 매우 흡사하게 생겼거든. 그것은 귀찮은 일이지만 쉬운 일이기도 하지.”

그리고는 우리 땅에 사는 어린아이들 머릿속에 꼭 박히도록 예쁜 그림을 하나 그려 보라고 했다. “그들이 언젠가 여행을 할 때,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 하지만 바오밥나무의 경우에는 그랬다가는 언제나 큰 재난이 따르는 법이야.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는 어느 별을 나는 알고 있었어. 그는 작은 나무 세 그루를 무심히 내버려두었었지.....”



그래서 어린 왕자가 가르쳐 주는 대로 나는 그 별을 그렸다. 나는 성인 군자와 같은 투로 말하기는 싫다. 그러나 바오밥나무의 위험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소혹성에서 길을 잃게 될 사람이 겪을 위험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난생 처음으로 나는 그런 조심성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려 한다. “어린아이들이여! 바오밥나무를 조심하라!” 내가 이 그림을 이처럼 정성껏 그린 것은 내 친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오래 전부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위험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 그림을 통해 내가 전하는 교훈은 이 그림을 그리느라 수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의문

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이 책에는 왜 바오밥나무의 그림만큼 장엄한 그림들이 또 없을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다른 그림들도 그렇게 그리려 애써 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바오밥나무를 그릴 때에는 급박한 심정으로 열성을 지니고 그렸던 것이다.



6.

아! 어린 왕자, 너의 쓸쓸하고 단순한 생활을 이렇게 해서 나는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었지. 너에게는 오랫동안 심심풀이라고는 해질녘의 감미로움밖에 없었지.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나는 그 새로운 사실을 알았지. 네가 내게 이렇게 말했거든.

“나는 해질 무렵을 좋아해. 해지는 걸 보러 가.....”“기다려야지.....”

“뭘 기다리지?”

너는 처음에는 몹시 놀라는 기색이었으나 곧 자기 말이 우스운 듯 웃음을 터뜨렸지. 그리고는 나에게 말했지.

“아직도 집에 있는 것만 같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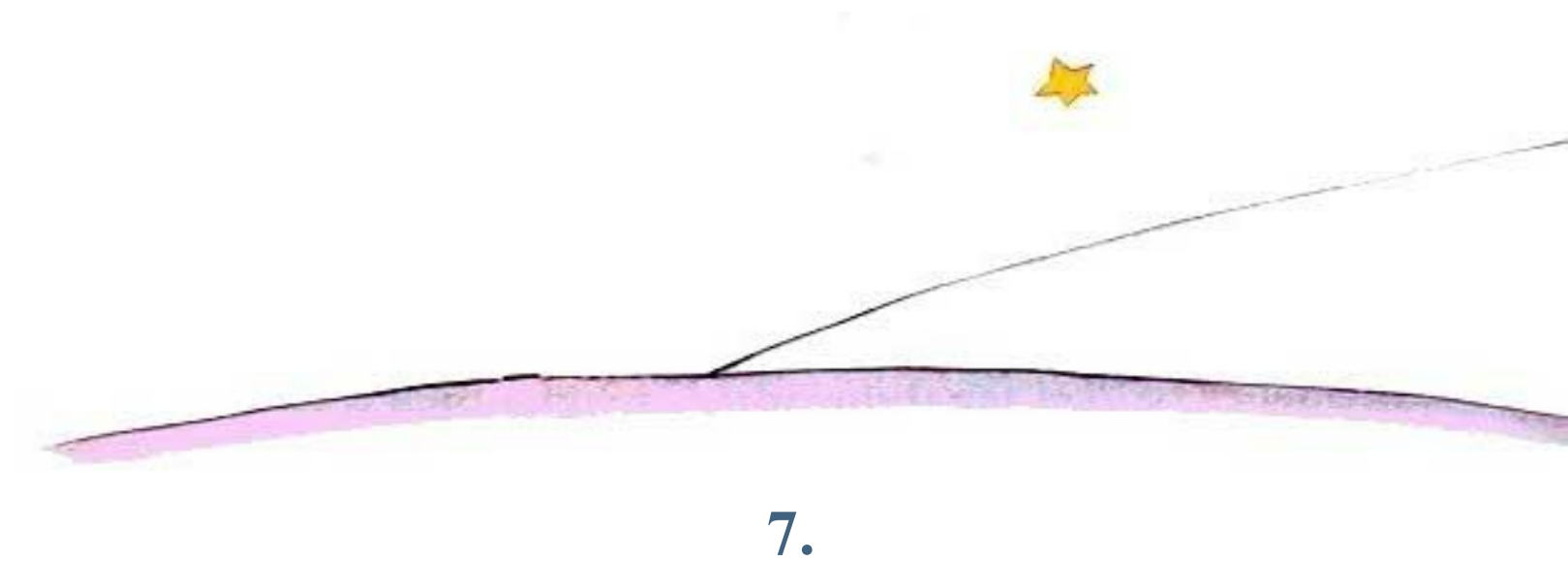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다. 모두들 알고 있듯이 미국에서 정오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프랑스로 단숨에 달려갈 수만 있다면 해가 지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그러나 너의 조그만 별에서는 의자를 몇 발

썩 뒤로 물려 놓기만 하면 되었지. 그래서 언제나 원할 때면 너는 석양을 바라볼 수 있었지.....

“어느 날 나는 해가 지는 걸 마흔 세 번이나 보았어!”그리고는 잠시 후 너는 다시 말했지.

“몹시 슬플 때에는 해지는 모습을 좋아하게 되지.....”“마흔 세 번 본 날 그럼 너는 몹시 슬펐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이 없었다.



7.

닷새째 되는 날. 역시 양의 덕분에 어린 왕자의 생활의 비밀을 한 가지 알게 되었다. 그가 불쑥, 오랫동안 혼자 어떤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튀어나온 말인 듯, 나에게 물었다.

“양은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지?”

“양은 닥치는 대로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고말고.”

“그럼 가시는 어디에 소용되지?”

나도 그것은 알지 못했다. 나는 그때 내 모터의 너무 꼭 죄어 있는 볼트를 빼내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비행기의 고장이 매우 중대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먹을 물이 바닥이 드러나고 있어 최악의 상태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나는 무척 불안했던 것이다.

“가시는 무엇에 소용되는 거지?”

어린 왕자는 일단 질문을 했을 때는 포기하는 적이 없었다. 나는 볼트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으므로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대답해 버렸다.

“가시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꽃들이 공연히 심술부리는 거지.”“그래?”

그러나 잠시 아무 말이 없다가 어린 왕자는 원망스럽다는 듯 나에게 이렇게 툭 쏘아붙였다.

“그건 거짓말이야! 꽃들은 연약해. 순진하고. 꽃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가시가 있으면 무서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는 거야.....”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이 볼트가 계속 버티면 망치로 두들겨 튀어나오게 해야지”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또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다.

“그럼 아저씨 생각으로는 꽃들이.....”

“그만해 뒤! 그만해 뒤! 아무래도 좋아! 난 되는데로 대답했을 뿐이야. 나에겐 지금 중대한 일이 있어!”

그는 깜짝 놀라서 나를 바라보았다.

“중대한 일이라고?”

망치를 손에 들고 손가락은 시커멓게 기름 투성이가 되어 그에게는 매우 흉측스럽게 보이는 물체 위로 몸을 기울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는 어른들처럼 말하고 있잖아!”

그 말에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다. 그런데도 그는 사정없이 말을 이어갔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그는 정말로 화가 나 있었다. 온통 금빛인 그의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시뻔건 얼굴의 신사가 살고 있는 별을 나는 알고 있어. 그는 꽃향기라고는 말아 본 적이 없어.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아무도 사랑해 본 일도 없고. 오로지 계산만 하면서 살아왔어. 그래서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라고 되뇌이고 있고 그래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지!”

“뭐라고?”

“버섯이라니까!”

어린 왕자는 이제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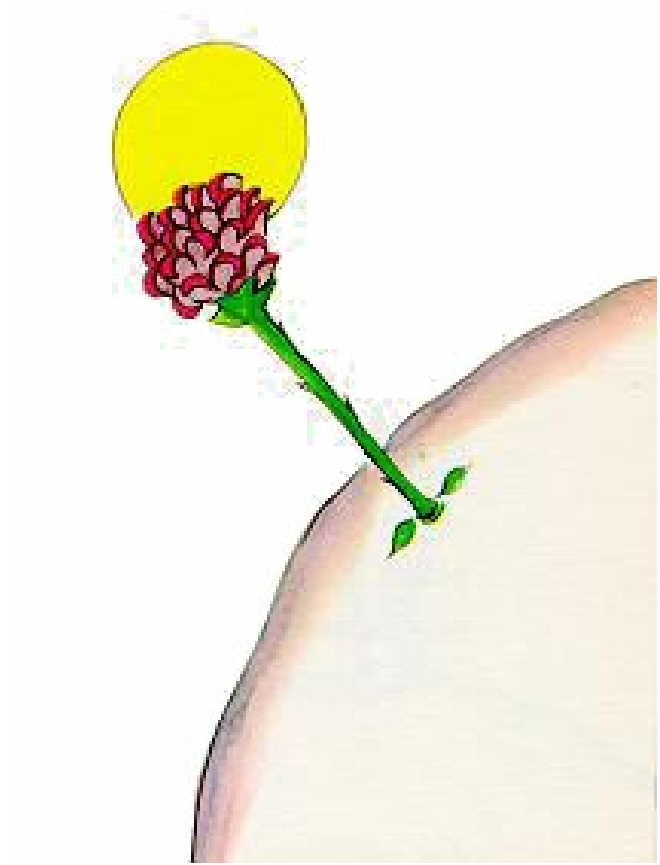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고 있어. 양도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을 먹어 왔고. 그런데도 그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를 왜 만들어 내는지 알려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양과 꽃들의 전쟁은 중요한게 아니라는 거지? 그건 붉은 얼굴의 뚱뚱한 신사가 하는 계산보다 더 중요한 건 못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 아무데도 없고 오직 나의 별에만 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한 송이 꽃을 내가 알고 있고, 작은 양이 어느 날 아침 무심코 그걸 먹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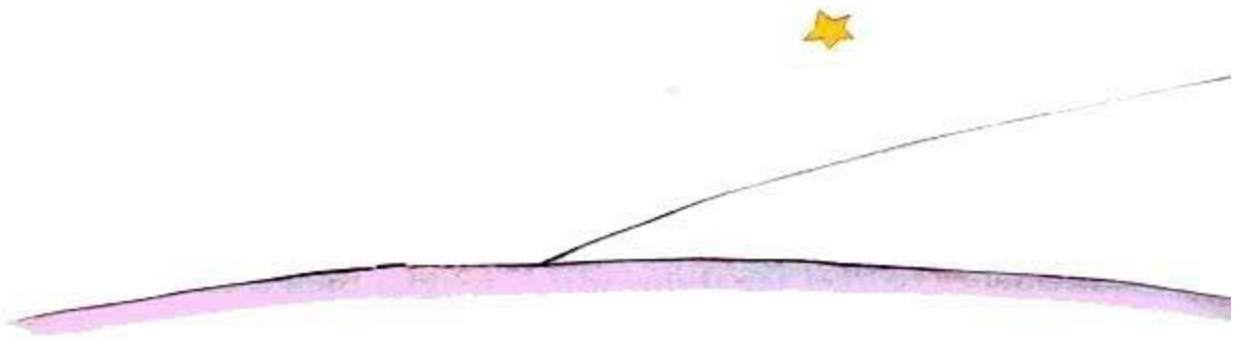
어린 왕자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을 이었다.

“수백만 개의 별들 중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그 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 그는 속으로 <내 꽃이 저기 어딘가에 있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 하지만 양이 그 꽃을 먹는다면 그에게는 갑자기 모든 별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별안간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밤이 내린 뒤였다. 나는 손에서 연장을 놓아 버렸다. 망치도 볼트도 목마름도 죽음도 모두 우습게 생각되었다. 어떤 별, 어떤 떠돌이별 위에 나의 별, 이 지구 위에 위로해 주어야 할 한 어린 왕자가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를 두 팔로 껴안았다. 그를 부드럽게 흔들면서 나는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위험에 처해 있지 않아..... 너의 양에게 굴레를 그려 줄게..... 나는.....” 더 이상 무어라 말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내 자신이 무척 서투르게 느껴졌다. 어떻게 그를 감동시키고 그의 마음

을 붙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눈물의 나라는
그처럼 신비로운 것이다.





8.

나는 곧 그 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전부더 꽃잎이 한 겹인 아주 소박한 꽃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자리를 거의 차지하지 않았고 아무도 귀찮게 굴지 않았다. 그들은 어느 날 아침 풀 속에 나타났다가는 저녁이면 사라져 버리곤 했다. 그런데 그 꽃은 어딘지 모를 곳에서 날라져 온 씨앗으로부터 어느 날 싹이 텄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다른 싹들과 닮지 않은 그 싹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나무인지도 모를 노릇이었다. 그러나 그 작은 나무는 곧 성장을 멈추고 꽃을 피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커다란 꽃망울이 맺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어린 왕자는 거기에서 어떤 기적 같은 것이 나타나리라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꽃은 그 연록색 방 속에 숨어 언제까지고 아름다워질 준비만 하고 있었다. 꽃은 세심하게 빛깔을 고르고 있었다.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을 하나씩 둘씩 다듬고 있었다. 그 꽃은 개양귀비꽃처럼 구겨진 모습으로 밖으로 모습을 나타내고 싶어하지 않았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최고로 빛을 발할 때에야 나타내고 싶어했다. 아! 정말, 아주 애교스러운 꽃이었다. 그의 신비로운 몸단장은 그래서 며칠이고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아침, 바로 해가 떠오르는 시각에, 그 꽃은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것처럼 공들여 몸치장을 한 그 꽃은 하품을 하며 말하는 것이었다.

“아! 이제 막 잠이 깹니다..... 용서하세요..... 제 머리가 온통 헝클어져 있네요.....” 어린 왕자는 그때 감탄을 억제할 수 없었다.

“참 아름다우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난 해와 같은 시간에 태어났답니다.....” 꽃이 살며시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그 꽃이 그다지 겸손하지는 않다는 점을 알아챘다. 하지만 그 꽃은 너무도 감동적이 아닌가!

“아침 식사할 시간이군요. 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으실는지요.....” 잠시 후 그 꽃이 다시 말했다.



그래서 몹시 당황한 어린 왕자는 신선한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찾아 그 꽃의 시중을 들어 주었다.

이렇게 그 꽃은 태어나자마자 까다로운 허영심으로 그를 괴롭혔다. 어느 날은 자기가 가진 네 개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와도 좋아요!”

“내 별에 호랑이들은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들은 풀을 먹지도 않고요”라고 어린 왕자는 항의했다.



“저는 풀이 아니어요.” 그 꽃이 살며시 대답했다.

“용서해 줘요.....”

“난 호랑이는 조금도 무섭지 않지만 바람은 질색이랍니다. 바람막이 가지고 있으세요?”(바람은 질색이라..... 식물로서는 안된 일이군. 이 꽃은 아주 까다로운 식물이군.....)하고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녁에는 나에게 유리덮개를 씌워 주세요. 당신이 살고 있는 이곳은 매우 춥군요. 설비가 좋지 않고요. 내가 살던 곳은.....”

그러나 꽃은 말을 잊지 못했다. 그 꽃은 씨앗의 형태로 온 것이었다. 다른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있을 리가 없었다. 것처럼 빠른 거짓말을 하려다 들킨 게 부끄러워진 그 꽃은 어린 왕자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침을 두어 번 했다.

“바람막이 있으시냐고 했잖아요?.....”

“찾아보려는 참이었는데 당신이 말을 계속했잖아요!”그러자 그 꽃은 그래도 어린 왕자에게 가책을 느끼게 하려고 더 심하게 기침을 했다.

그리하여 어린 왕자는 사랑에서 우러나온 호의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수롭지 않은 말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몹시 불행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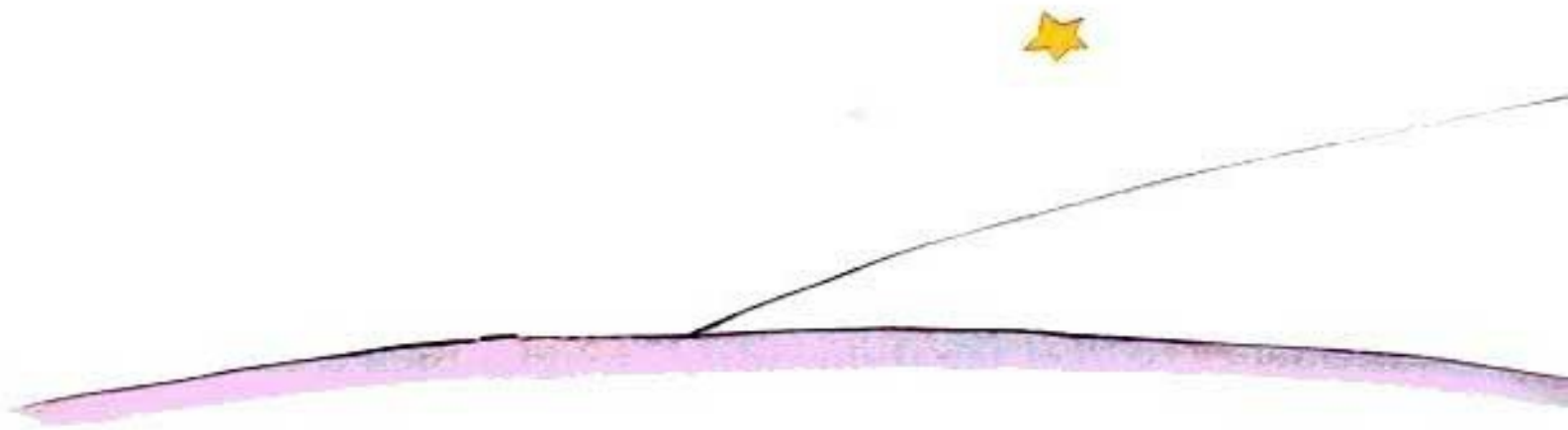
어느 날 그는 털어놓았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했어. 꽃들의 말엔 절대로 귀를 기울이면 안되는 법이야. 바라보고 향기를 맡기만 해야 해.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로 뒤덮었어.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즐길 줄 몰랐어. 그 밭톱 이야기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실은 측은해 했어야 옳았던 거야.....”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어. 그 꽃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만 했어. 그 꽃은 나에게 향기를 풍겨 주고 내 마음을 환하게 해주었어. 결코 도망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 가련한 꾀 뒤에는 애정이 숨어 있다는 걸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그랬어. 꽃들은 이처럼 모순된 존재들이거든!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그를 사랑할 줄을 몰랐던 거야.”



9.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하여 별을 떠나왔으리라 생각한다. 떠나는 날 아침 그는 그의 별을 잘 정돈해 놓았다. 불을 뿜는 화산들은 정성스레 쏘아서 청소했다. 그에게는 불을 뿜는 화산이 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아침밥을 데우는 데 아주 편리했다. 불이 꺼져 있는 화산도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말처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그래서 불 꺼진 화산도 잘 쏘서 놓았다. 화산들은 잘 청소되어 있을 때는 부드럽게, 규칙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타오른다. 화산의 폭발은 벅난로의 불과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물론 우리 지구 위에서는 우리들의 화산을 쏘시기에는 우리가 너무 작다. 그래서 화산이 우리에게 숯한 곤란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좀 서글픈 심정으로 바오밥나무의 마지막 싹들도 뽑아 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친숙한 그 모든 일들이 그날 아침에는 유난히 다정

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 꽃에 마지막으로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 주려는 순간 그는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잘 있어.” 그는 꽃에게 말했다.

그러나 꽃은 대답하지 않았다.

“잘 있어.” 그가 되뇌었다.

꽃은 기침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어리석었어. 용서해 줘. 행복해지도록 노력하길 바래.” 이윽고 꽃이 말했다.

비난조의 말을 들을 수 없게 된 게 어린 왕자는 놀라웠다. 그는 유리덮개를 손에 든 채 어쩔 줄 모르고 멍하니 서 있었다. 꽃의 그 조용한 다정함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 난 너를 좋아해. 넌 그걸 전혀 몰랐지. 내 잘못이었어. 아무래도 좋아. 하지만 너도 나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었어. 부디 행복해..... 유리덮개는 내버려둬. 그런 건 이제 필요없어.”

“하지만 바람이 불면.....”

“내 감기가 그리 대단한 건 아냐..... 밤의 서늘한 공기는 내게 유익할 거야. 나는 꽃이니까.”“하지만 짐승이.....”

“나비를 알고 싶으면 두세 마리의 뽕기벌레는 견뎌야지. 나비는 무척 아름다운 모양이니까. 나비가 아니라면 누가 나를 찾아주겠어? 너는 멀리에 가 있겠지. 커다란 짐승들은 두렵지 않아. 손톱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꽃은 천진난만하게 네 개의 가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지 마. 신경질아. 떠나기로 결심했으니 어서 가.”꽃은 울고 있는 자기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토록 자존심 강한 꽃이었다.....



10.

그는 소혹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330호와 이웃해 있었다. 그래서 일거리도 구하고 견문도 넓힐 생각으로 그 별들부터 찾아보기로 했다.

첫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그 왕은 홍포(紅布)와 흰 담비 모피로 된 옷을 입고 매우 검소하면서도 위엄 있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아! 신하가 한 명 왔구나!” 어린 왕자가 오는 것을 보자 왕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볼까?)왕에게는 세상이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신하인 것이다.

“너를 좀더 잘 볼 수 있게 가까이 다가오라.” 어떤 사람의 왕 노릇을 하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러워진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자리를 찾았으나 그 별은 흰 담비 모피의 그 호화스러운 망토로 온통 다 뒤덮여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서 있었다. 그리고 피곤했으므로 하품을 했다.

“왕의 면전에서 하품하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는 일이니라. 하품을 금지하노라.” 임금님이 말했다.

“하품을 참을 수가 없어요. 긴 여행을 해서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어리둥절해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네게 명하노니 하품을 하도록 하라. 하품하는 걸 본 지도 여러 해가 되었구나. 하품하는 모습은 짐에게는 신기한 구경거리니라. 자! 또 하품을 하라. 명령이니라.” 왕이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겁이 나서..... 하품이 나오지 않는군요.....” 얼굴을 붉히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흠! 어흠! 그렇다면 짐이..... 짐이 명하노니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고 왕이 대답했다.

그는 뭐라고 중얼중얼했다. 화가 난 기색이었다.

왜냐하면 그 왕은 자신의 권위가 존중되기를 무엇보다도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불복 종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전제 군주였다. 하지만 매우 선량했으므로 사리에 맞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다.

“만약에 짐이 어떤 장군더러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장군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그건 장군의 잘못이 아니니라. 그건 짐의 잘못이니라”라고 그는 평상시에 늘 말하곤 했다.

“앉아도 좋을까요?” 어린 왕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네게 앉기를 명하노라.” 흰 담비 모피로 된 망토 한 자락을 위엄있게 걸어올리며 왕이 대답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의아해 하고 있었다. 별은 아주 조그마했다. 왕은 무엇을 다스린담?”폐하, 한 가지 여쭙어 봐도 좋을까요.....”

“네게 명하노니. 질문을 하라.”



“폐하..... 폐하는 무엇을 다스리고 계신지요.”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펍이나 간단히 왕이 대답했다.

“모든 것들요?”

왕은 신중한 몸짓으로 그의 별과 다른 별들과 떠돌이별들을 가리켰다.

“그 모든 것들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왕이 대답했다.

그는 절대 군주였을 뿐 아니라 온 우주의 군주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럼 별들도 폐하에게 복종하나요?”

“물론이니라. 즉각 복종하노라. 규율을 어기는 것을 짐은 용서치 아니하느니라.” 왕이 말했다.

그러한 굉장한 권력에 어린 왕자는 경탄했다. 그도 그런 권능을 가질 수 있다면 의자를 뒤로 물려 놓지 않고도 하루에 마흔 네 번 아니라, 일흔 두 번, 아니 백 번 이백 번 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게 아닌가! 그래서 버리고 온 그의 작은 별에 대한 추억 때문에 조금 슬퍼진 어린 왕자는 용기를 내어 왕에게 청을 드려 보았다.

“저는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해에게 지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짐이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닐 것을 명령하거나 비극 작품을 한 편 쓰라고 명령하거나 혹은 물새로 변하도록 명령했는데 그 장군이 그 명령을 받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가 잘못일까, 짐이 잘못일까?”

“폐하의 잘못이시죠.” 어린 왕자가 자신 있게 말했다.

“옳으니라. 누구에게든 그가 이행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는 법이니라. 권위는 무엇보다도 사리에 두어야 하느니라. 만일 내가 너의 백성에게 바다에 몸을 던지라고 명령한다면 그들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니라. 내가 복종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 것은 나의 명령들이 이치에 맞는 까닭이다.” 왕이 말을 계속했다.

“그럼 제가 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십사 한 것은요?” 한 번 한 질문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어린 왕자가 일깨웠다.

“해가 지는 것을 네게 보게 해주겠노라. 짐이 요구하겠노라. 하지만 내 통치 기술에 따라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겠노라.”

“언제 그렇게 되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에헴, 에헴! 오늘 저녁..... 오늘 저녁..... 일곱 시 사십 분이니라!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왕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해지는 것을 못 보게 된 것이 섭섭했다. 그리고 벌써 조금 심심해졌다.

“이제 저는 여기서 할 일이 없군요. 다시 떠나가 보겠습니다!”“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너를 대신으로 삼겠노라!” 신하가 한 사람 있게 된 것이 몹시 자랑스러운 왕이 대답했다.

“무슨 대신이요?”

“저..... 사법대신이니라!”

“하지만 재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그건 모를 노릇이지. 짐은 아직 짐의 왕국을 순시해 보지 않았느니라. 짐은 매우 연로한데, 사륜마차를 둘 자리도 없고, 걸어다니자니 피곤해지거든.” 왕이 말했다.

“아! 제가 벌써 다 보았어요.” 허리를 굽혀 별의 저쪽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저쪽에도 아무도 없는데요.....”

“그럼 네 자신을 심판하거라.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니라.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법이거든. 네가 너 스스로를 훌륭히 심판할 수 있다면 그건 네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까닭이니라.” 왕이 대답했다.

“저는 어디서든 저를 심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에헴! 에헴! 내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있는 줄로 알고 있다. 밤이면 소리가 들리느니라. 그 늙은 쥐를 심판하거라. 때때로 그를 사형에 처하거라. 그러면 그의 생명이 너의 심판에 달려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매번 그에게 특사를 내려 그를 아끼도록 하라. 단 한 마리밖에 없는 까닭이니라.” 왕이 대답했다.

“저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건 싫습니다. 아무래도 가야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가지 마라.”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떠날 준비를 끝마쳤으나 늙은 임금을 섭섭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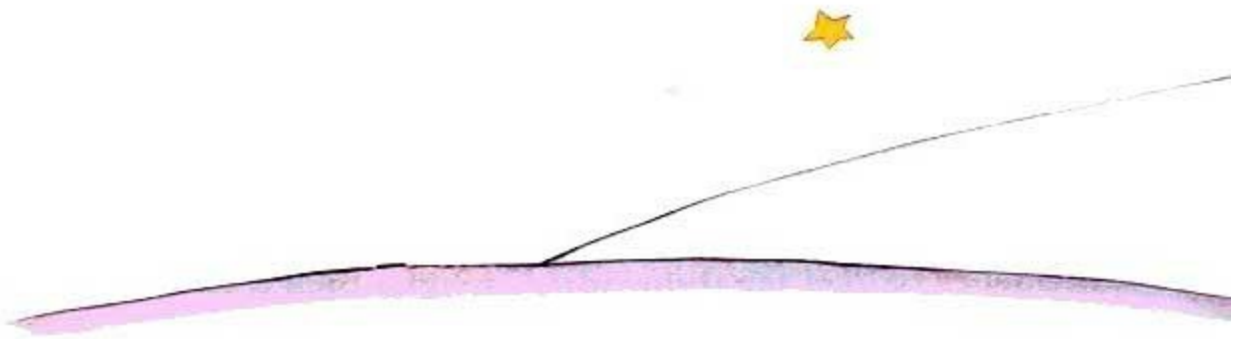
“폐하의 명령이 준수되길 원하신다면 제게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려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일 분 내로 떠나도록 제게 명령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지금 조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왕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므로, 어린 왕자는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길을 떠났다.

“너를 내 대사(大使)로 명하노라.” 왕이 황급히 외쳤다.

그는 매우 위엄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하군)하고 어린 왕자는 여행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11.

두 번째 별은 허영심에 빠진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아! 아! 저기 나를 찬양하는 사람이 찾아오는군!”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허영심 많은 사람이 멀리서부터 외쳤다.

허영심 많은 사람들에게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찬양해 주는 사람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야릇한 모자를 쓰고 계시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답례하기 위해서지. 나에게 사람들이 환호를 보낼 때 답례하기 위해서지. 그런데 불행히도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허영심 많은 사람이 대답했다.

“아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어린 왕자가 말했다.

“두 손을 마주 두드려요.” 허영심 많은 사람이 가르쳐 주었다.

어린 왕자는 두 손을 마주 두드렸다. 허영심 많은 사람은 모자를 들어올리며 점잖게 답례했다.

“왕을 방문할 때보다 더 재미있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서 그는 다시 두 손을 마주 두드렸다. 허영심 많은 사람이 모자를 들어올리며 다시 답례를 했다.

오 분쯤 되풀이하고 나니 어린 왕자는 그 장난이 재미없어졌다.

“모자가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가 물었다.

그러나 허영심 많은 사람은 그의 말을 듣지 못했다. 허영심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찬양의 말만이 들리는 법이다.

“너는 정말로 나를 찬양하지?” 그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찬양한다는 게 뭐지?”

“찬양한다는 건 내가 이 별에서 가장 미남이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부자고 가장 똑똑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지.”

“하지만 이 별엔 아저씨 혼자밖에 없잖아!”

“나를 기쁘게 해줘. 그래도 나를 찬양해 줘.”

“아저씨를 찬양해 그런데 그게 아저씨에게 무슨 상관이 있지?” 어깨를 조금 들썩하면서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하군)하고 어린 왕자는 여행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12.

그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그 방문은 매우 짧았지만 어린 왕자를 깊은 우울에 빠뜨렸다.

“뭘 하고 있어요?” 빈병 한 무더기와 술이 가득 차 있는 병 한 무더기를 앞에 놓고 말없이 앉아 있는 술꾼을 보고 그가 말했다.

“술을 마시지.” 침울한 표정으로 술꾼이 대꾸했다.

“왜 술을 마셔요?” 어린 왕자가 그에게 물었다.

“잊기 위해서지.” 술꾼이 대답했다.

“무엇을 잊기 위해서예요?” 측은한 생각이 든 어린 왕자가 물었다.



“부끄럽다는 걸 잊기 위해서지.” 머리를 숙이며 술꾼이 대답했다.

“뭐가 부끄럽다는 거지요?” 그를 돕고 싶은 어린 왕자가 캐물었다.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 이렇게 말하고 술꾼은 침묵을 지켰다.

그래서 난처해진 어린 왕자는 길을 떠나 버렸다.

(어른들은 정말 참 이상하군)하고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면서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13.

네 번째 별은 실업가의 별이었다. 그 사람은 어찌나 바쁜지 어린 왕자가 도착했을 때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군요.” 그가 말했다.

“셋에다 둘을 더하면 다섯, 다섯하고 일곱을 더하면 열 둘, 열 둘에 셋을 더하면 열 다섯. 안녕. 열 다섯에 일곱을 더하면 스물 둘, 스물 둘에 여섯을 더하면 스물 여덟. 다시 담뱃불 붙일 시간이 없어. 스물 여섯에 다섯을 더하면 서른 하나라. 휴우! 그러니까 5월 1백 6십 2만 2천 7백 3십 1이 되는구나.”



“무엇이 5억이야?”

“응? 너 아직도 거기 있니? 저..... 5억 1백만..... 생각이 안 나는구나..... 너무 바빠서. 나는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허튼 소리 할 시간이 없어! 둘에다 다섯을 더하면 일곱.....”

“무엇이 5억이야?” 한번 한 질문을 포기해 본 적이 평생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실업가가 머리를 들었다.

“이 별에서 54년 동안 살고 있는데 내가 방해를 받은 적은 딱 세 번 뿐이야. 첫번째는 22년 전이었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를 웬 풍뎡이가 날 방해했어. 그게 요란한 소리를 내서 계산이 네 군데나 틀렸었지. 두 번째는 11년 전이었는데. 신경통 때문이었어. 난 운동 부족이거든. 산 보할 시간이 없으니까. 난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가만 있자. 5억 1백만이었겠다.....”

“무엇이 5억 1백만이라는 거지요?”

실업가는 조용히 일하기는 글렀다는 걸 깨달았다.

“때때로 하늘에 보이는 그 작은 것들 말이다.”

“파리?”

“천만에. 반짝거리는 작은 것들 말이다.”

“꿀벌?”

“천만에. 게으름뱅이들을 멍청이 공상에 잠기게 만드는 금빛나는 작은 것들 말이다. 헌데 난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 공상에 잠길 시간이 없어.”

“아! 별 말이군?”

“맞았어 별이야.”

“5억의 별들을 가지고 뭘 하는 거지?”

“5억 1백 6십 2만 2천 7백 3십 1개야. 나는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정확한 사람이 지.”“그 별들 가지고 뭘 하는 거야?”

“뭘 하느냐고?”

“그래.”

“아무것도 하는 것 없어.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지.”

“별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

“하지만 내가 전에 본 어떤 왕은.....”

“왕은 소유하지 않아. 그들은 다스리지. 그건 아주 다른 얘기야.”“그럼 그 별들을 소유하는 게 아저씨에게 무슨 송용이 돼?”“부자가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다른 별들이 발견되면 그걸 사는 데 소용되지.”

(이 사람도 그 술꾼처럼 말하고 있군)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그래도 그는 질문을 계속했다.

“별들을 어떻게 소유한담?”

“별들이 누구 거지?” 투덜대듯이 실업가가 되물었다.

“모르겠는걸. 그 누구의 것도 아니겠지.”

“그러니까 내 것이지. 내가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했으니까.”“그러면 아저씨 것이 되는 거야?”

“물론이지. 임자 없는 다이아몬드는 그걸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지. 임자가 없는 섬을 네가 발견하면 그건 네 소유가 되는 거고. 네가 어떤 좋은 생각을 제일 먼저 해냈으면 특허를 맡아야 해. 그럼 그것이 네 소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별들을 소유하고 있는 거야. 나보다 먼저 그것들을 소유할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

“그건 사실이지. 아저씨는 별들을 가지고 뭘 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것들을 관리하지. 세어 보고 또 세어 보고 하지. 그건 힘드는 일이야. 하지만 나는 진지한 사람이거든!”

어린 왕자는 그래도 흡족해 하지 않았다.

“나는 말이야, 머물러는 소유하고 있을 때는 그것을 목에 두르고 다닐 수가 있어. 또 꽃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그 꽃을 꺾어 가지고 다닐 수가 있고,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을 꺾을 수가 없잖아!”

“그럴 수는 없지. 하지만 그것들을 은행에 맡길 수 있지.”“그게 무슨 말이야.”

“조그만 종이조각에다 내 별들의 숫자를 적어 그것을 서랍에 넣고 잠근단 말이야.”“그리고 그뿐이야?”

“그뿐이지.”

(그것 재미있는데. 아주 시적(詩的)이고, 하지만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군)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어린 왕자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어른들과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말이야, 꽃을 한 송이 소유하고 있는데 매일 물을 줘. 세 개의 화산도 소유하고 있어서 매주 그을음을 청소해 주고는 하지. 불이 꺼진 화산도 청소해 주니까 세 개란 말이야.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거든. 내가 그들을 소유하는 건 내 화산들에게나 내 꽃에게 유익한 일이야.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유익하지 않잖아.....”

실업가는 입을 열어 무슨 말을 하려 했으나 할 말을 찾아 내지 못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떠나 버렸다.

(어른들은 정말 아주 이상야릇하군)하고 어린 왕자는 여행하면서 혼자 속으로 중얼거릴 뿐이었다.



14.

다섯 번째 별은 무척 흥미로운 별이었다. 그것은 모든 별들 중에서 제일 작은 별들이었다.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있을 자리밖에 없었다. 하늘 한 구석, 집도 없고 사람들도 살지 않는 별에서 가로등 켜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어린 왕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지도 몰라. 그래도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이나 실업가. 혹은 술꾼보다는 덜 어리석은 사람이지, 적어도 그가 하는 일은 하나의 의미가 있거든. 가로등을 켤 때는 별 한 개를, 혹은 꽃 한 송이를 더 태어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가로등을 끌 때는 그 꽃이나 그 별을 잠들게 하는 거고. 그거 아주 아름다운 직업이군. 아름다우니까 진실로 유익한 것이고)



그 별에 다가가서 그는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 아저씨. 왜 가로등을 지금 막 켜어?”

“안녕, 그건 명령이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명령이 뭐야?”

“내 가로등을 끄는 거지. 잘 자.”

그리고 그는 다시 불을 켰다.

“왜 지금 막 가로등을 다시 켰어?”

“명령이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걸.”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해할 건 아무것도 없지. 명령은 명령이니까. 잘 자.”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그리고 가로등을 켰다.

그리고 나서는 붉은 바둑판 무늬의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았다.

“난 정말 고된 직업을 가졌어> 전에는 우리가 없었는데.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이면 다시 켜었지. 그래서 나머지 낮시간에는 쉬고 나머지 밤시간에는 잠을 잘 수 있었거든.....”

“그럼, 그 후 명령이 바뀌었어?”

“명령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게 문제지! 이 별은 해가 갈수록 빨리 돌고 있는데 명령은 바뀌지 않았단 말이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별이 매분마다 일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일 초도 쉴 새가 없는 거야. 매분마다 한 번씩 켜다가 켜다가 해야 하는 거지.”

“그거 참 이상하네! 아저씨네 별에선 하루가 일분이라니!”“조금도 이상할 것 없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가 벌써 한달이 되어 있단다.”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한 달이?”

“그래. 삼십 분이니까, 삼십 일이지! 잘 자.”

그리고는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그를 바라보았다. 명령에 그토록 충실한 그 가로등 켜는 사람이 그는 좋아졌다. 의자를 뒤로 물리면서 해지는 걸 보고 싶어하던 지난 일이 생각났다.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다.

“저 말이야.....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이 있어.....”“그야 언제나 쉬고 싶지.”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성실하면서도 또 한편 게으름부리고 싶을 수도 있는 법인 것이다.

어린 왕자는 말을 계속했다.

“아저씨 별은 아주 작으니까 세 발짝만 옮겨 놓으면 한 바퀴 돌 수 있잖아. 언제나 햇빛 속에 있으려면 천천히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쉬고 싶을 때면 걸어가도록 해..... 그럼 하구 해가 원하는 만큼 길어질 수 있을 거야.”

“그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겠는걸. 내가 무엇보다 좋아하는 건 잠을 자는 거니까.”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그거 유감인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유감이야. 잘 자.” 가로등 점화하는 사람이 말했다.

그리고는 가로등을 켜다.

(저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이나 술꾼, 혹은 실업가 같은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테지, 하지만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뿐이야. 그건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일에 전념하기 때문일 거야) 더 멀리로 여행을 계속하면서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그는 섭섭해서 한숨을 내쉬며 이런 생각도 했다.

(내가 친구로 삼을 수 있었던 사람은 저 사람뿐이었는데, 그렇지만 그의 별은 너무 작아. 두 사람이 있을 자리가 없거든.....)

그가 그 축복받은 별을 잊지 못하는 것은, 스물 네 시간 동안에 1천 5백 4십 번이나 해가 지는 때문이었다는 것은 어린 왕자가 차마 스스로에게도 고백하지 못하는 사실이었다.



15.

여섯 번째 별은 열 배나 더 큰 별이었다. 그 별에는 무지하게 커다란 책을 쓰고 있는 늙은 신사 한 분이 살고 있었다.

“야! 탐험가가 하나 오는군!” 어린 왕자를 보며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린 왕자는 테이블 위에 걸터앉아 조금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벌써 몸시도 긴 여행을 했던 것이다.

“어디서 오는 거냐?” 그 노인이 물었다.

“이 두꺼운 책은 뭐예요? 여기서 뭘 하시는 거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난 지리학자란다.” 노인이 말했다.

“지리학자가 뭐예요?”

“바다와 강과 도시와 산, 그리고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지.” “그거 참 재미있네요. 그거야말로 직업다운 직업이군요!” 어린 왕자는 말하고 지리학자의 별을 한 번 휘둘러 보았다. 것처럼 멋진 별을 그는 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 별은 참 아름답군요. 넓은 바다도 있나요?” “난 몰라.”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그래요? (어린 왕자는 실망했다) 그럼 산은요?”

“난 몰라.”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럼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그것도 알 수 없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할아버진 지리학자 아네요!”

“그렇지. 하지만 난 탐험가가 아니거든. 내겐 탐험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단다. 도시와 강과 산, 바다와 태양과 사막을 세러 다니는 건 지리학자의 하는 일이 아냐. 지리학자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니까 한가히 돌아다닐 수가 없지. 서재를 떠날 수가 없어. 서재에서 탐험가들을 만나든 거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여 그들의 기억을 기록하는 거야. 탐험가의 기억 중에 흥미로운 게 있으면 지리학자는 그 사람의 정신상태를 조사시키지.”

“그건 왜요?”

“탐험가가 거짓말을 하면 지리책에 커다란 이변이 일어나게 될 테니까. 탐험가가 술을 너무 마셔도 그렇지.”

“그건 왜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왜냐하면 술에 잔뜩 취한 사람에겐 모든 게 둘로 보이거든. 그렇게 되면 지리학자는 산 하나밖에 없는 데다 산 둘을 기입하게 될지도 모르잖아.”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그럼 나쁜 탐험가가 될 수 있겠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탐험가의 정신상태가 훌륭하다고 생각 될 때는 그의 발견을 조사하지.”

“가보시나요?”

“아니지. 그건 너무 번잡스러우니까. 그 대신 탐험가에게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거야. 예컨대 커다란 산을 발견했을 때는 커다란 돌멩이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거지.”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분했다.

“그런데 너는 멀리서 왔지! 너는 탐험가야! 너의 별이 어떤 별인지 이야기해 줘!” 그러더니 지리학자는 노트를 펴고 연필을 깎았다. 탐험가의 이야기를 처음에는 연필로 적었다가 그가 증거를 가져오기를 기다려서 잉크로 적는 것이었다.

“자, 시작해 볼까?” 지리학자가 물었다.

“아, 내 별은 별로 흥미로울 게 없어요. 아주 작거든요. 화산이 셋있어요. 둘은 불이 있는 화산이고 하나는 불이 꺼진 화산이지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제겐 꽃 한 송이도 있어요.”

“우린 꽃은 기록하지 않아.” 지리학자가 말했다.

“왜요? 그게 더 예쁜데요!”

“꽃들은 일시적인 존재니까.”

“<일시적인 존재>가 뭐예요?”

“지리학은 모든 책들 중 가장 귀중한 책이야. 지리학은 유행에 뒤지는 법이 없지. 산이 위치를 바꾸는 일은 매우 드물거든. 바닷물의 물이 비어 버리는 일도 매우 드물고.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기록하는 거야.”

“하지만 불 꺼진 화산들이 다시 깨어날 수도 있어요. <일시적인 존재>가 뭐예요?” 어린 왕자가 말을 가로막았다.

“화산이 꺼져 있든 깨어 있는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산이지. 산은 변하지 않거든.”

“그런데 <일시적인 존재>란 뭐예요?” 한번 한 질문은 평생 포기해 본 적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되물었다.

“그건 <머지 않은 장래에 사라져 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지.” “내 꽃은 머지 않은 장래에 사라져 버릴 위험에 처해 있나요?” “물론이지.”

(내 꽃은 일시적 존재야. 세상에 대항할 무기라곤 네 개의 가시밖에 없고! 그런데 나는 그 꽃을 내 별에 혼자 내버려두고 왔어!) 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그것은 후회스러운 느낌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용기를 냈다.

“어디를 가보는 게 좋을까요?” 그가 물었다.

“지구라는 별로 가 봐. 대단히 이름높은 별이거든.....” 그리하여 어린 왕자는 그의 꽃에 대해 생각하며 다시 길을 떠났다.



16.

일곱 번째 별은 그래서 지구였다.

지구는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별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1백 11명의 왕(물론 흑인나라의 왕을 포함해서)과 7천 명의 지리학자와 90만 명의 실업가. 7백 50만 명의 술주정뱅이, 3억 1천 1백만 명의 허영심 많은 사람들, 즉 약 20억쯤 되는 어른들이 살고 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여섯 대륙을 통틀어 4십 6만 2천 5백 11명이나 되는 가로등 점화하는 사람들을 두어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지구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갈 것이다.

그래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면 눈부시게 멋진 광경이 벌어지는 것이었다. 그들이 무리지어 움직이는 모습은 오페라의 발레에서처럼 질서정연한 것이었다. 맨 처음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의 차례였다. 가로등을 켜고 나면 그들은 잠을 자러 갔다. 그러고 나면 중국과 시베리아의 가로등 점화하는 사람들이 발레 무대에 나타났다. 그들 역시 무대 뒤로 살짝 몸을 감추고 나면 러시아와 인도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 다음번에는 아프리카와 유럽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는 남 아메리카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는 북 아메리카의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들은 무대에 나타나는 순서를 틀리게 하는 법이 없었다. 그것은 무척 장엄한 광경이었다.

오직 북극의 단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 켜는 사람과 북극에 있는 그의 동료들만이 한가하고 태평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일년에 두 번 일을 했다.



17.

재치를 부리려다 보면 조금 거짓말을 하는 수가 있다. 가로등 켜는 사람들에게 대해 내가 한 이야기는 아주 정직한 것은 못된다. 지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칫하면 지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할 수도 있을 이야기였다. 사람들이 지구 위에서 차지하는 자리란 실은 아주 작은 것이다. 지구에서 사는 20억의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서처럼 서로 좀 바짝바짝 붙어 서 잇는다면 세로 20마일 가로 20마일의 광장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들은 태평양의 아주 작은 섬 위에 차곡차곡 쌓아 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른들은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오밥나무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들에게 계산을 해보라고 일러주어야 한다. 그들은 숫자를 좋아하니까. 그럼 그들은 기분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문제를 푸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다. 여러분은 내 말을 믿지 않는가.

어린 왕자는 그래서 지구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사람이라곤 통 보이지 않는 데 놀랐다. 그가 잘못해서 다른 별로 찾아온 게 아닌가 겁이 나 있을 때, 달 같은 빛깔의 고리가 모래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안녕.” 어린 왕자가 무턱대고 말했다.

“안녕.” 뱀이 말했다.

“지금 내가 도착한 별이 무슨 별이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야. 아프리카지.” 뱀이 대답했다.

“그래!..... 그럼 지구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니?”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없어. 지구는 커다랄거든.”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눈길을 하늘로 향했다.

“누구든 언제고 다시 자기 별을 찾아낼 수 있게 별들이 환히 불 밝혀져 있는지 궁금해. 내 별을 바라봐. 바로 우리들 위에 있어..... 그런데 어쩌면 저렇게 멀리 있지!”

“아름답구나. 여기 무엇 하러 왔니?” 뱀이 말했다.

“난 어떤 꽃하교의 사이에 골치 아픈 일이 있단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뱀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잠자코 있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사막에선 조금 외롭구나.....” 어린 왕자가 마침내 다시 입을 떼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그를 한참 바라보았다.

“넌 아주 재미있게 생긴 짐승이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고.....” 그가 말했다.

“그래도 난 왕의 손가락보다도 더 힘이 세단다.”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미소를 지었다.

“넌 힘이 세지 못해..... 발도 없고..... 여행도 할 수 없잖아.....”“난 배보다 더 먼 곳으로

너를 데려다 줄 수 있어.” 뱀이 말했다.

그는 어린 왕자의 발뒤꿈치에 팔찌처럼 몸을 휘감더니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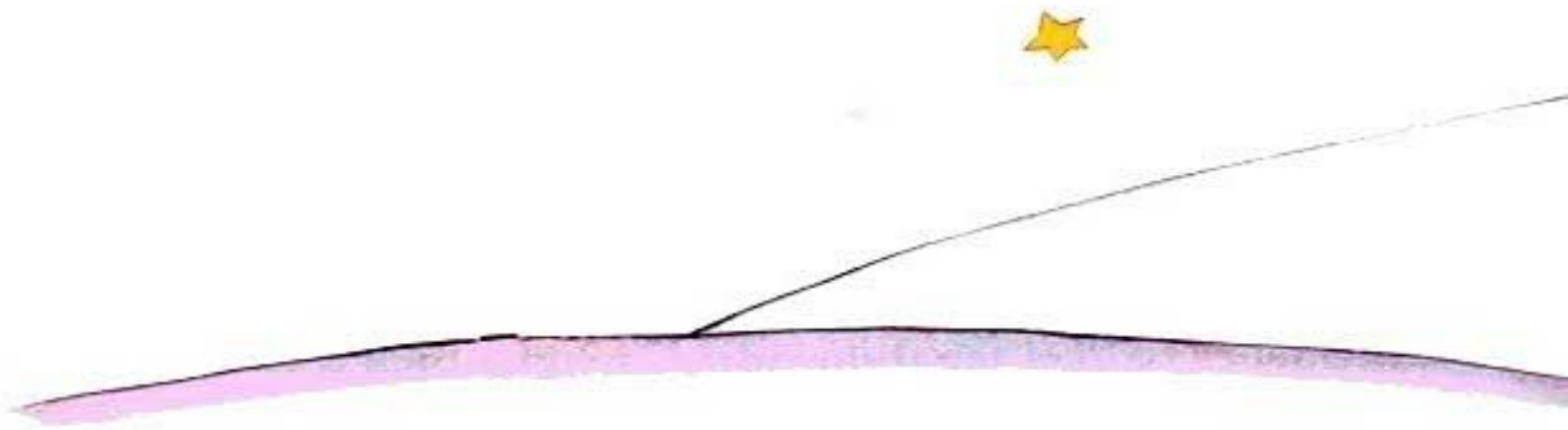
“나를 건드리는 사람마다 그가 나왔던 땅으로 돌려보내주지. 하지만 너는 순진하고 또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네가 측은해 보이는구나. 무척이나 연약한 몸으로 이 돌맹이 투성이의 지구에 왔으니. 네 별이 몹시 그리울 때면 언제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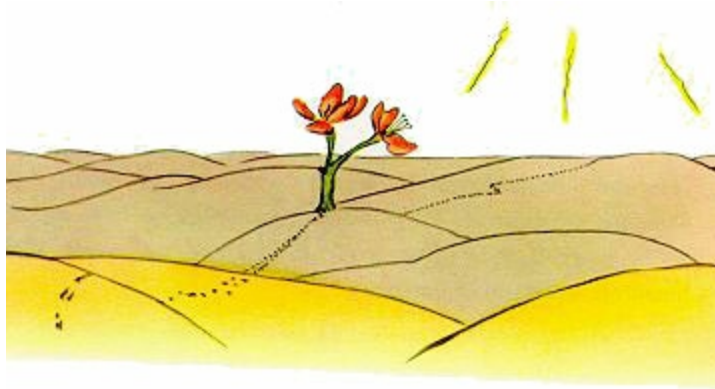
“응! 아주 잘 알았어. 헌데 왜 그렇게 언제나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난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뱀이 말했다.

그리고는 그들은 침묵을 지켰다.



18.

어린 왕자는 사막을 횡단했는데 오직 꽃 한 송이를 만났을 뿐이었다. 석장의 꽃잎을 가진 볼품이라곤 없는 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꽃이 말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어린 왕자가 정중히 물었다.

그 꽃은 언젠가 대상(隊商)의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이라구? 한 예닐곱 사람 있는 것 같아. 몇 해 전에 그들을 본 적이 있어. 하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야. 그들은 바람결에 불려다니거든, 뿌리가 없어서 몹시 곤란을 받고 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꽃이 말했다.



19.

어린 왕자는 한 높은 산 위로 올라갔다. 그가 아는 산이라곤 그의 무릎에 달는 세 개의 화산이 고작이었다. 불 꺼진 화산은 걸상으로 이용하곤 했었다. (이 산처럼 높은 산에서는 이 별과 사람들 모두를 한 눈에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바늘 끝처럼 뾰족뾰족한 산봉우리만 보일 뿐이었다.



“안녕.” 그가 혹시나 하고 말해 보았다.

“안녕..... 안녕..... 안녕.....” 메아리가 대답했다.

“너는 누구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너는 누구지..... 너는 누구지..... 너는 누구지.....”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가 되어 줘. 나는 외로와.” 그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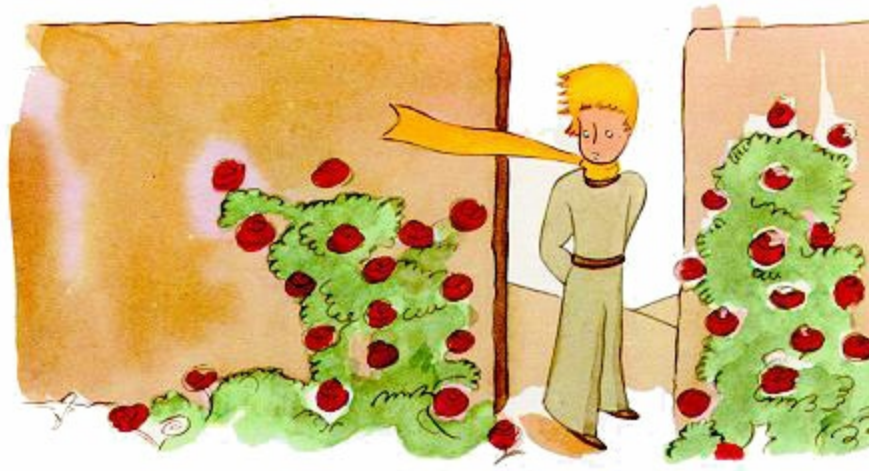
“나는 외로와..... 나는 외로와..... 나는 외로와.....” 메아리가 대답했다.

(참 알곶은 별이군! 메마르고 뽕족뽕족하고 험하고,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이 없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되풀이하니..... 나의 집에는 꽃 한 송이가 있었지, 그 꽃은 언제나 먼저 말을 걸어왔는데.....)

20.

그리하여 어린 왕자는 모래와 바위와 눈 가운데를 오랫동안 걷고 난 끝에 드디어 길을 하나 발견했다. 그런데 길들이란 모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통하는 법이다.

“안녕.” 그가 말했다.



그것은 장미가 만발한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꽃들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모두 그의 꽃과 똑 빼닮은 것들이었다.

“너희들은 누구니?” 깜짝 놀란 어린 왕자가 그들에게 물었다.

“우리는 장미꽃들이야.” 장미꽃들이 말했다.

“아. 그래?”

그러자 어린 왕자는 자신이 아주 불행하게 느껴졌다. 이 세상에 자기와 같은 꽃은 오직 하

나뿐이라고 그의 꽃은 그에게 말해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원 하나 가득히 그와 똑같은 꽃들이 5천 송이는 되는 게 아닌가!

(내 꽃이 이걸 보면 몹시 상심할 거야)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기침을 지독히 해대면서 창피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죽으려는 시늉을 할 거야. 그럼 난 간호해 주는 척하지 않을 수 없겠지. 그러지 않으면 내게 죄책감을 주려 정말로 죽어 버릴지도 몰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도 생각했다.(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꽃을 가졌으니 부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꽃은 그저 평범한 한 송이 꽃일 뿐이야. 그중 하나는 영영 불이 꺼져 버렸는지도 모를, 내 무릎까지 오는 세 개의 화산과 그 꽃으로 내가 굉장히 위대한 왕자가 될 수는 없어.....) 그래서 그는 풀숲에 엎드려 울었다.



21.

여우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공손히 대답하고 몸을 돌렸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난 여기 사과나무 밑에 있어.” 좀전의 그 목소리가 말했다.

“너는 누구지? 넌 참 예쁘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여우야.” 여우가 말했다.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놀아. 난 정말로 슬프단다.....” 어린 왕자가 제의했다.

“난 너와 함께 놀 수 없어.” 여우가 말했다. “나는 길들여져 있지 않으니까.”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나 잠깐 생각해 본 후에 그는 다시 말했다.

“<길들인다>는 게 뭐지?”

“넌 여기 사는 애가 아니구나. 넌 무얼 찾고 있니?” 여우가 물었다.

“난 사람들을 찾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길들인다>는 게 뭐지?” “사람들은 소총을 가지고 있고 사냥을 하지. 그게 참 곤란한 일야! 그들은 병아리들도 길러.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지. 너 병아리를 찾니?” 여우가 물었다.

“아니야. 난 친구들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뭐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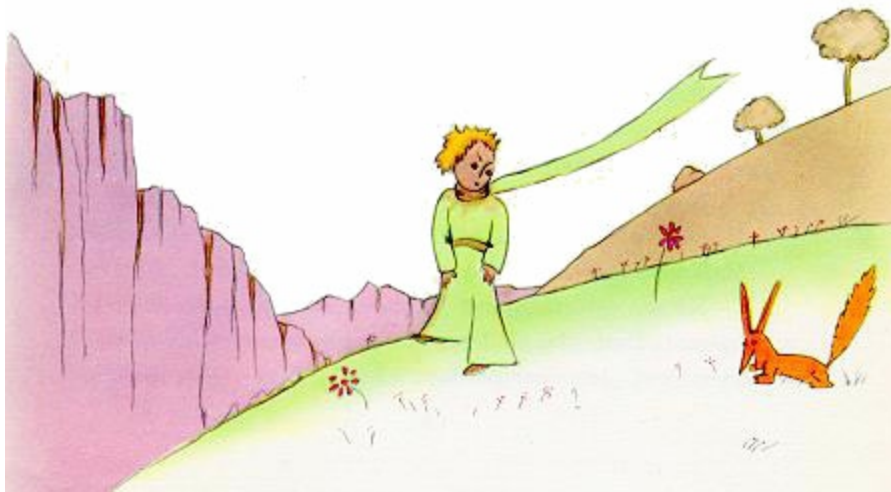
“그건 너무 잘 잊혀지고 있는 거지. 그건 <관계를 만든다.....>는 뜻이야.” 여우가 말했다.

“관계를 만든다고?”

“그래.” 여우가 말했다. “넌 아직 나에겐 수많은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소년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난 너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난 너에겐 수많은 다른 여우와 똑같은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너에겐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차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어린 왕자가 말했다. “꽃 한 송이가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인 걸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 여우가 말했다. “지구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있으니까.....”“아, 아니야!
그건 지구에서가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우는 몹시 궁금한 기색이었다.

“그럼 다른 별에서의?”

“그래.”

“그 별엔 사냥꾼들이 있지?”

“아니, 없어.”

“그거 참 이상하군! 그럼 병아리는?”

“없어.”

“이 세상에 완전한 데라곤 없군.” 여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여우는 하던 이야기로 다시 말머리를 돌렸다.

“내 생활은 단조롭단다. 나는 병아리를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병아리들은 모두 똑같고
사람들도 모두 똑같아. 그래서 난 좀 심심해.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환히 밝
아질 거야. 다른 모든 발자국소리와 구별되는 발자국소리를 나는 알게 되겠지. 다른 발자국
소리들은 나를 땅 밑으로 기어들어가게 만들 테지만 너의 발자국소리는 땅 밑 굴에서 나를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길 봐!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은 먹지 않아. 밀은 내겐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밀밭은 나에게 아무것도 생각나게 하지 않아. 그건 서글픈 일이지! 그런데
너는 금빛 머리칼을 가졌어. 그러니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정말 근사할 거야! 밀은 금빛이니
까 나에게 너를 생각나게 할 거거든. 그럼 난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소리를 사랑하게 될
거야.....”

여우는 입을 다물고 어린 왕자를 오래오래 쳐다보더니,“부탁이야..... 나를 길들여 줘!”하고 말했다.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어린 왕자는 대답했다. “하지만 내겐 시간이 많지 않아. 친구들을 찾아 내야 하고 알아볼 일도 많아.”

“우린 우리가 길들이는 것만을 알 수 있는 거란다.”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알 사간이 없어졌어. 그들은 상점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사거든. 그런데 친구를 파는 상점은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는 거지. 친구를 가지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 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참을성이 있어야 해.” 여우가 대답했다. “우선 내게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풀숲에 앉아 있어. 난 너를 결눈질해 볼 거야. 넌 아무 말도 하지 말아. 말은 오해의 근원이야. 날마다 넌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왔을 수 있게 될 거야.....”

다음날 다시 어린 왕자는 그리로 갔다.

“언제나 같은 시각에 오는 게 더 좋을 거야.” 여우가 말했다. “이를테면, 네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난 세 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네 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아무 때나 오면 몇 시에 마음을 곱게 단장을 해야 하는지 모르잖아. 의식(儀式)이 필요하거든.”

“의식이 뭐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것도 너무 자주 잊혀지고 있는 거야.” 여우가 말했다. “그건 어느 하루를 다른 날들과 다르게 만들고, 어느 한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다르게 만드는데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사냥꾼들에게도 의식이 있어.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의 처녀들과 춤을 추지. 그래서 목요일은 신나는 날이지! 난 포도밭까지 산보를 가고.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추면, 하루하루가 모두 똑같이 되어 버리잖아. 그럼 난 하루도 휴가가 없게 될 거고.....”

그래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출발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여우는 말했다.

“아아! 난 울 것만 같아.”

“그건 네 잘못이야. 나는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널 길들여 주길 네가 원했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그래.” 여우의 말이었다.

“헌데 넌 울려고 그러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정말 그래.” 여우가 말했다.

“그러니 넌 이익본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익본 게 있지. 밀밭의 색깔 때문에 말야.” 여우가 말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장미꽃들을 다시 가서 봐. 너는 너의 장미꽃이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내게 돌아와서 작별인사를 해줘. 그러면 내가 네게 한 가지 비밀을 선물할게.”

어린 왕자는 장미꽃을 보러 갔다.

“너희들은 나의 장미와 조금도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에게 그는 말했다. “아무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도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예전의 내 여우와 같아. 그는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꼭같은 여우일 뿐이었어. 하지만 내가 그를 친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여우야.”

그러자 장미꽃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텅 비어 있어.” 그가 계속 말했다. “누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수 없을 테니까. 물론 나의 꽃은 지나가는 행인에게 너희들과 똑같이 새긴 것으로 보이겠지. 하지만 그 꽃 한 송이는 내게는 너희들 모두보다도 더 중요해. 내가 그에게 물을 주었기 때문이지. 내가 병풍으로 보호해 준 것은 그 꽃이기 때문이지. 내가 벌레를 잡아 준 것(나비 때문에 두세 마리 남겨둔 것 말고)도 그 꽃이기 때문이지, 불평을 하거나 자랑을 늘어놓는 것을, 또 때로는 말없이 침묵을 지키는 것을 내가 귀기울여 들어준 것도 그 꽃이기 때문이지. 그건 내 꽃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는 여우에게로 돌아갔다.

“안녕.” 그가 말했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은 이런 거야. 그것은 아주 단순하지. 오로지 마음으로만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다.”

“가장 중요한 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다.” 잘 기억하기 위해 어린 왕자가 되뇌었다.

“너의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그 꽃을 위해 네가 소비한 그 시간이라네.”“.....
내가 나의 장미꽃을 위해 소비한 시간이라네.....” 잘 기억하기 위해 어린 왕자라 말했다.

“사람들은 그 진리를 잊어버렸어.” 여우가 말했다. “하지만 넌 그것을 잊으면 안 돼. 너는 네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나는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잘 기억하기 위해 어린 왕자는 되뇌었다.



22.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철도의 전철수가 말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어린 왕자가 물었다.

“한 꾸러미에 1천여 명씩 되는 기차손님들을 꾸러미 별로 가려내고 있어. 그들을 싣고 가는 기차들을 어느 때는 오른쪽으로, 어느 때는 왼쪽으로 보내는 거지.” 전철수가 말했다.

불을 환히 밝힌 급행열차 한 대가 천둥처럼 소리를 내며 조종실을 뒤흔들었다.

“저 사람들은 몹시 바쁘군. 그들은 뭘 찾고 있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기관사 자신도 몰라.” 전철수가 말했다.

그러자 반대 방향에서 두 번째 불을 밝힌 급행열차가 소리를 냈다.

“그들이 벌써 돌아오는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아까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지. 서로 엇갈리는 거지.” “그들은 있던 곳에서 만족하지 않았나 보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만족하지 않는단다.” 전철수가 말했다.

그러자 세 번째의 불을 밝힌 급행열차가 우렁차게 달려왔다.

“저 사람들은 먼젓번 승객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쫓아가고 있지 않아.” 전철수가 말했다. “그들은 저 속에서 잠들어 있거나 아니면 하품을 하고 있어. 오직 어린아이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납작 대고 있을 뿐이지.”

“어린아이들만이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들은 누더기 같은 인형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그것은 그들에겐 아주 주요한 게 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가면 어린아이들은 울지.....”

“아이들은 행복하군.” 전철수가 말했다.



23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장사꾼이 말했다.

그는 목마름을 가라앉혀 주는 새로 나온 알약을 파는 사람이었다. 일주일에 한 알씩 먹으면 마시고 싶은 욕망을 영영 느끼지 않게 되는 약이었다.

“왜 그걸 팔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시간을 굉장히 절약하게 해주거든.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보았어. 매주 오십 삼 분씩 절약하게 되는 거야.” 장사꾼이 말했다.

“그 오십 삼 분으로 뭘 하지?”

“하고 싶은 걸 하지.....”

(만일 나에게 마음대로 사용할 오십 삼 분이 있다면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텐데.....)하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24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킨 지 여드레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비축해 두었던 물의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을 마시며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네 체험담은 참 아름답구나. 하지만 난 아직도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어. 마실 거라곤 없고.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나도 행복하겠다!”라고 말했다.

“내 친구 여우는.....” 그가 말했다.

“꼬마 친구야. 여우 이야기할 때가 아냐!”

“왜?”

“목이 말라 죽게 되었으니까 말야.....”

그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했다.

“죽어간다 할지라도 한 친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좋은 일이야. 난 여우 친구가 있었다는 게 기뻐.....”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못하는군)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는 배고픔도 갈증도 느끼지 않고 있었다. 햇빛만 조금 있으면 그에겐 충분했다.

그런데 그가 나를 바라보더니 내 마음을 안다는 듯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도 목이 말라..... 우물을 찾으러 가.....”

나는 소용없다는 몸짓을 했다.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아 나선다는 건 당치도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말없이 걷고 나니 밤이 내리고 별들이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갈증 때문에 나는 열이 조금 나고 있었으므로 그 별들이 마치 꿈속에서처럼 시야에 들어왔다. 어린 왕자의 말이 내 기억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너도 목이 마르니?” 내가 물었다.

하지만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은 것일 수 있는데.....”

나는 그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잠자코 있었다..... 그에게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는 지쳐 있었다. 그는 앉았다. 나도 그의 곁에 앉았다. 그러자 잠시 침묵을 지키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별들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에.....”나는 “그렇지”하고 대답하고는 말없이 달빛 아래서 주름처럼 펼쳐져 있는 모래 둔덕들을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그가 다시 말했다.

그것은 사실이였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사랑해 왔다. 사막에서는 모래 둔덕 위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인가 침묵 속에 빛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막의 그 신비로운 빛남이 무엇인가를 나는 문득 깨닫고 흥칫 놀랐다. 어린 시절 나는 해묵은 낡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집에는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였다. 물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것을 찾으려 든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보물로 하여 그 집 전체는 매력에 넘쳐 있었다. 우리 집은 저 가장 깊은 곳에 보물을 감추고 있는 것이였다.....

“그래. 집이건 별이건 혹은 사막이건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아저씨가 나의 여우가 같은 의견이어서 기뻐.” 그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잠이 들었으므로 나는 그를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나는 감동되어 있었다. 부서지기 쉬운 어떤 보물을 안고 가는 느낌이었다. 마치 이 지구에는 그보다 더 부서지기 쉬운 게 없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다. 창백한 이마. 감겨 있는 눈, 바람결에 나부끼는 머리카락을 달빛 아래에서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여기 보이는 건 껍질뿐이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방식 열린 그의 입술이 보일듯 말듯 미소를 띠고 있었으므로 나는 또 생각했다.(이 잠든 어린 왕자가 나를 이토록 몹시 감동시키는 것은 꽃 한 송이에 대한 그의 성실성, 그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램프의 불꽃처럼 그의 마음 속에서 빛나고 있는 한 송이 장미꽃의 모습이야.....) 그러자 그가 더욱더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짐작이 들었다. 램프의 불은 잘 보호해 주어야 한다. 한 줄기 바람에도 그것은 깨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렇게 걸어가다가 나는 동틀 무렵에 우물을 발견했다.



25

“사람들은 급행열차에 올라타지만 그들이 찾으러 가는 게 무엇인지 몰라. 그래서 초조해 하며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도 소용없는데.....”

우리가 도달한 우물은 사하라의 우물과 달랐다. 사하라의 우물은 그저 모래에 파 놓은 구멍 같은 것이다. 그 우물은 마을 우물과 흡사했다. 그곳엔 그러나 마을이라곤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싶었다.

“이상하군.”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모든 게 갇추어져 있잖아. 도르래. 물통 밧줄.....” 그는 웃으며 줄을 잡고 도르래를 움직였다. 그러자 도르래는 바람이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을 때 낡은 풍차가 삐걱이듯 그렇게 삐걱였다.



“들리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게 하지 이 우물이 노래를 하잖아.”나는 그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할께.” 내가 말했다. “너에겐 너무 무거워.”

천천히 나는 두레박을 우물 둘레의 돌까지 들어올렸다. 나는 그것을 돌 위에 떨어지지 않게 올려놓았다. 내 귀에는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아직도 쟁쟁하게 울렸고, 아직도 출렁이고 있는 물 속에서는 햇살이 일렁이는 게 보였다.

“이 물을 마시고 싶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물을 좀 줘.....”그러자 나는 그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두레박을 그의 입술로 가져갔다. 그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축제처럼 즐거웠다. 그 물은 필경 음료와는 다른 어떤 것이었다. 그것은 별빛 아래서의 행진과 도르래의 노래와 내 두 팔의 노력으로 태어난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선물을 받았을 때처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자정미사의 음악과 사람들의 미소의 부드러움이 내가 받는 선물을 마냥 황홀한 것으로 만들어 주었었다.

“아저씨 별의 사람들은 한 정원 안에 장미꽃을 5천 송이나 가꾸지만.....”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들이 찾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지 못해.....”

“그래. 발견하지 못한단다.” 내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찾는 것은 단 한 송이의 꽃이나 물 한 모금에서 발견될 수도 있어.....”“물론이지.” 그가 대답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그러나 눈은 보지를 못해. 마음으로 찾아야 해.”

나도 물을 마시고 난 후였다. 편히 숨을 쉴 수가 있었다. 해가 뜰이면 모래는 꿀빛깔을 띤다.

나는 그 꿀빛깔에도 행복했다. 괴로워할 필요가 어디 있었겠는가.....

“약속을 지켜 줘야 해.” 어린 왕자가 내게 살며시 말했다. 그는 다시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무슨 약속?”

“약속했잖아.....양에게 굴레를 씌워 준다고.....난 그 꽃에 책임이 있어!”나는 끔찍거리 두었던 그 그림을 포켓에서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림들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나무들은 뽕 비슷하게 생겼어.....”“아, 그래?”

바오밥나무 그림에 대해 난 몹시 우쭐해 있지 않았던가!”여우는..... 귀가..... 뽕 비슷하다고..... 너무 기다랗고!”그리고는 그는 또 웃었다.

“너는 너무 심하구나. 나는 속이 뵈거나 안 뵈거나 하는 보아 구렁이밖에 목 그린다니까.”“아, 괜찮아. 아이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가 말했다.

나는 그래서 연필로 굴레를 그렸다. 그 굴레를 어린 왕자에게 주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구나.....”그러나 그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기구에 떨어진 지도..... 내일이면 돌이야.....”그리고는 잠시 묵묵히 있던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었어.....”

그는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왠지 모르게 나는 또다시 야릇한 슬픔이 솟구쳤다. 그런데도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그럼 일주일 전 내가 너를 알게 된 날 아침 사람 사는 고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여기서 네가 혼자 걷고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떨어진 지점으로 돌아가고 있어?”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래서 머뭇거리며 나는 말을 이었다.

“아마 돌이 되어서 그런 거겠지?.....”

어린 왕자는 또 얼굴을 붉혔다. 그는 묻는 말에 결코 대답하진 않았으나 얼굴을 붉힌다는 것은 그렇다는 뜻이 아닌가?

“아! 난 두려워지는구나.....”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해. 아저씨 기계로 돌아가. 난 여기서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을께 내일 저녁에 돌아와.....”

하지만 나는 안심이 되지 않았다. 여우 생각이 났다. 길들여졌을 때는 좀 울게 될 염려가 있는 것이다.



26

우물이 있는 쪽에는 폐허가 된 해묵은 돌담이 있었다. 다음날 저녁, 일을 하고 돌아오면서 보니 어린 왕자가 그 우에 앉아 다리는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게 들렸다.

“아니야, 아니야. 날씨는 맞지만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나는 담벽을 행해 걸어갔다.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없는데도 어린 왕자는 다시 대꾸를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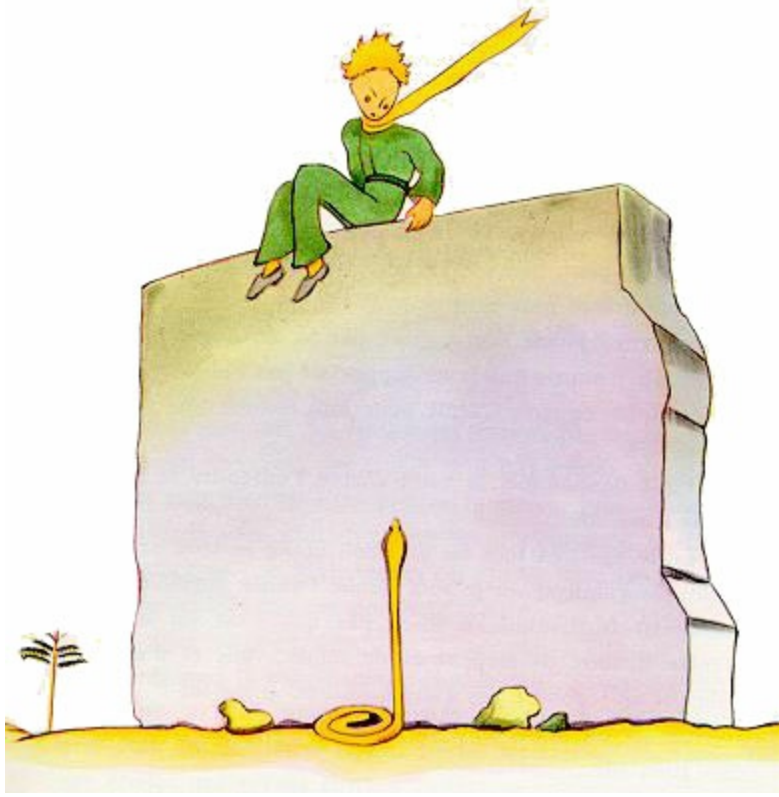
“.....물론이지. 모래 위의 내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가서 봐. 거기서 날 기다리면 되. 오늘 밤 그리고 갈게.”

나는 담벽에서 20미터쯤 되는 거리에 있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네 독은 좋은 거니? 틀림없이 날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지?”나는 가슴이 두근거리 우뚝 멈춰섰다. 아무래도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럼 이제 가 봐.” 그가 말했다. “내려갈 테야!”



그래서 나도 담벽 밑으로 시선을 내리뜨려 보다가 기겁을 하고 말았다! 거기에는 삼십 초만에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 노란 뱀 하나가 어린 왕자를 향해 몸을 곳곳이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권총을 꺼내려고 호주머니를 뚫다 뒤흔치며 나는 막 뛰어갔다. 그러나 내 발자국소리에 뱀은 모래 속으로 스르르 물줄기 찾아들듯 미끄러져 들어가더니 가벼운 금속성 소리를 내며 돌들 사이로 조금도 허둥대지 않고 교묘히 몸을 감추어 버렸다.

나는 담 밑까지 이르러 눈처럼 새하얗진 나의 어린 왕자를 간신히 품에 받아안을 수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지? 이젠 뱀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나는 그가 밤낮없이 목에 두르고 있는 그 금빛 머플러를 풀었다. 관자놀이에 물을 적시고 물을 마시게 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에게 무어라 물어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진지한 빛으로 바라 보더니 내 목에 두 팔을 감았다. 카빈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그의 가슴이 뛰는 것이 느껴졌다.

“아저씨 기계 고장을 고치게 돼서 기뻐. 아저씨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됐지.....”“그걸 어떻게 알지?”

천만뜻밖에 고장을 고치는 데 성공했다는 걸 그에게 알리려던 참이 아니었던가!그는 내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이렇게 덧붙였다.

“나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

그러더니 쓸쓸히,

“내가 갈 길이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어려워.....”무엇인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 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를 어린 아기처럼 품안에 고옥 껴안았다. 그런데도 내가 붙잡을 사이도 없이 그는 깊은 심연 속으로 곧장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었다.

그는 물끄러미 아득한 곳을 바라보는 듯한 심각한 눈빛이었다.

“나에겐 아저씨가 준 양이 있어. 그리고 그 양을 위한 상자도 있고. 굴레도 있고.....”그리고는 쓸쓸히 그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그가 조금씩 조금씩 몸이 더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애, 넌 겁이 났었지.....”

그가 무서워하고 있었던 건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오늘 저녁엔 더 무서울 거야.....”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에 나는 다시금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 웃음소리를 영영 다시 들을 수 없게 되리라는 생각이 견딜 수 없는 일임을 나는 문득 깨달았다. 그것은 나에게서는 사막의 샘 같은 것이었다.

“애, 네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오늘 밤으로 꼭 일 년째가 돼. 나의 별이 내가 작년 이맘때 떨어져내린 그 장소 바로 위쪽에 있게 될 거야.....”

“애, 그 뱀이니 만날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모두 못된 꿈 같은 거 아니니.....”그러나 그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물론이지.....”

“꽃도 마찬가지로야. 어느 별에 사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에 하늘을 바라보는 게 감미로울 거야. 별들마다 모두 꽃이 될 테니까.”

“물론이지.....”

“물도 마찬가지로야. 아저씨가 내게 마시라고 준 물은 음악 같은 것이었어. 도르래와 밧줄 때문에..... 기억하지..... 물맛이 참 좋았지.”

“그래.....”

“밤이면 별들을 바라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지금 가리켜 줄 수가 없어. 그 편이 더 좋아. 내 별은 아저씨에게는 여러 별들 중의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럼 아저씨 어느 별이든지 바라보는 게 즐겁게 될 테니까..... 그 별들은 모두 아저씨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아저씨에게 내가 선물을 하나 하려고 해.....”

그는 다시 웃었다.

“아, 애, 그 웃음소리가 난 좋다!”

“그게 바로 내 선물이 될 거야..... 이젠 물도 마찬가지로야.....”“무슨 뜻이지?”

“사람들에 따라 별들은 서로 다른 존재야. 여행하는 사람에겐 별은 길잡이지. 또 어떤 사람들에게겐 그저 조그만 빛일 뿐이고. 학자인 사람에게는 연구해야 할 대상이고. 내가 만난 사업

가에겐 금이지. 하지만 그런 별들은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어. 아저씨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별들을 가지게 될 거야.....”

“무슨 뜻이니?”

“밤에 하늘을 바라볼 때면 내가 그 별들 중의 하나에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 별들 중의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모든 별들이 다 아저씨에겐 웃고 있는 듯이 보일 거야. 아저씨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의 슬픔이 가셨을 때는(언제나 슬픔은 가시게 마련이니까) 나를 안 것을 기뻐하게 될 거야. 아저씨 언제까지나 나의 친구로 있을 거야. 나와 함께 웃고 싶을 거고. 그래서 이따금 그저 괜히 창문을 열게 되겠지..... 그럼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바라보며 웃는 걸 보고 꽤나 놀랄 테지.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줘. <그래. 별들을 보면 언제나 웃음이 나오거든!> 그들은 아저씨가 미쳤나 보다고 생각하겠지. 난 그럼 아저씨에게 못할 짓을 한 셈이 되겠지.....”

그리고는 그는 다시 웃었다.

“별들이 아니라 웃을 줄 아는 조그만 방울들을 내가 아저씨에게 잔뜩 준 셈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그러더니 다시 심각한 기색이 되었다.

“오늘 밤은..... 오지 말아.”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걸.”

“난 아픈 것같이 보일 거야..... 좀 죽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게 마련이거든. 그런 걸 보러 오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테야.”

그러나 그는 근심스러운 빛이었다.



“내가 이런 말 하는 건..... 뱀 때문이야.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되거든..... 뱀은 사나워, 괜히 장난삼아 물기도 하거든.....”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는 안심하는 듯했다.

“두 번째 물 때는 독이 없다는 게 사실이야.....”

그날 밤 나는 그가 길을 떠나는 걸 보지 못했다. 그는 소리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뒤쫓아가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잔걸음으로 주저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아! 아저씨 왔어.....”

그리고는 내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는 다시 걱정을 했다.

“아저씨가 온 건 잘못이야. 마음 아파할 텐데. 내가 죽은 듯이 보일 테니까. 정말로 죽는 건 아닌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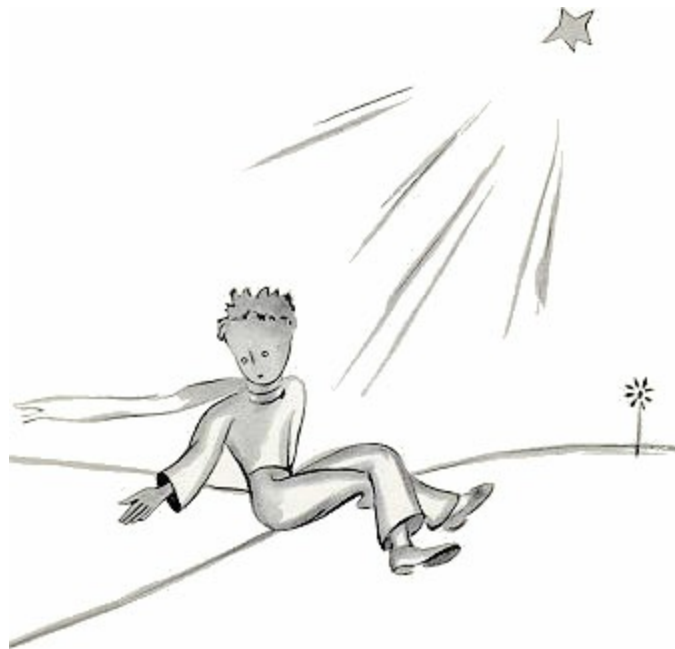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금 풀이 죽어 있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그는 다시 기운을 내려 애쓰고 있었다.

“참 좋겠지.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야. 별들이란 별은 모두 녹슨 도르래가 있는 우물로 보이게 될 테니까, 별들이 모두 내게 마실 물을 부어 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참 재미있겠지! 아저씨 5억 개의 작은 방울들을 가지게 되나 난 5억개의 샘물을 가지게 될 테니.....”



그리고는 그도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기야. 나 혼자 한 발짝 걸어가게 내버려둬 줘.”

그러더니 그는 그 자리에 앉았다.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그가 다시 말했다.

“아저씨..... 내 꽃 말인데..... 나는 그 꽃에 책임이 있어! 더구나 그 꽃은 몹시 연약하거든! 몹시도 순진하고, 별것도 아닌 네 개의 가시를 가지고 외부세계에 대해 자기 몸을 방어하려고 하고.....”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앉았다. 그가 말했다.

“자..... 이제 다 끝났어.....”

그는 또 조금 망설이더니 다시 일어섰다. 한 발자국을 내디뎠다. 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발목에서 노오란 한 줄기 빛이 반짝했을 뿐이었다. 그는 한순간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나무가 쓰러지듯 그는 천천히 쓰러졌다. 모래 때문에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27

그러니까 그게 벌써 여섯 해 전의 일이었다..... 이 이야기를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었다. 나와 다시 만나 친구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걸 매우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피곤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는 내 슬픔도 조금 가셨다. 다시 말해..... 완전히 싹 가서 버린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나는 그가 그의 별로 돌아갔다는 걸 알고 있다. 다음날 해가 떴을 때 그의 몸을 다시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의 몸은 그리 무겁지 않았다..... 그래서 밤이면 나는 별들에게 귀기울이기를 좋아한다. 그것들은 흡사 5억 개의 작은 방울들 같다.....

그런데 이상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어린 왕자에게 그려 준 굴레에 가죽끈을 붙이는 걸 내가 잊어버린 것이다! 그걸 양에게 잡아먹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의 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양이 꽃을 먹었을까.....)하고 궁금해 하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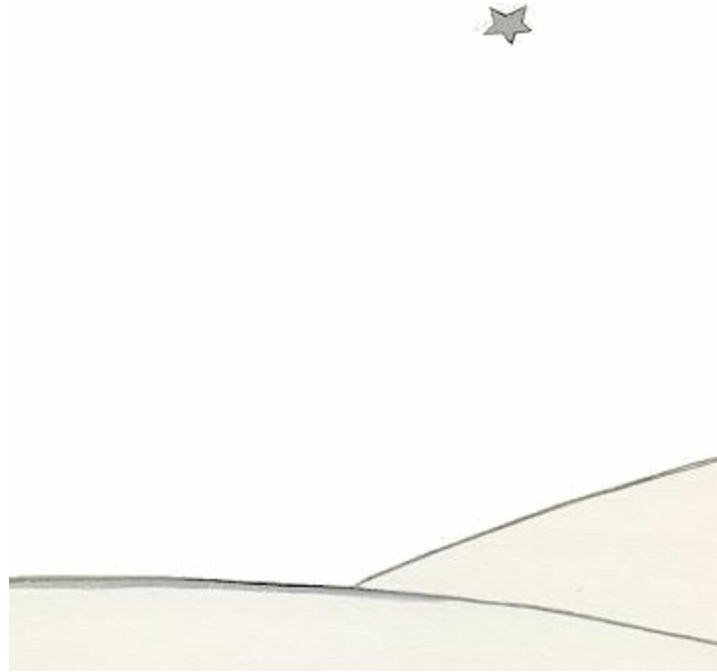
어느 때는 (천만에, 먹지 않았겠지! 어린 왕자는 그의 꽃을 밤새도록 유리덮개로 잘 덮어 놓겠지. 양을 잘 지킬 테고.....)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나는 행복해진다. 그러면 뭇별들이 모두 부드럽게 웃는다.

어느 때는 (한두 번 방심할 수도 있지. 그러면 끝장인데! 어느날 밤 그가 유리덮개를 잊었거나 양이 밤중에 소리없이 밖으로 나왔을지도 몰라.....)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면 작은 방울들은 모두 눈물방울로 변한다!.....

그것은 정말 커다란 수수께끼다.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나에게도 그럴듯이, 이 세상 어딘가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마리 양이 한 송이 장미꽃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천지가 온통 뒤바뀌게 될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라. 생각해 보라.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 모든 게 변함을 여러분은 알게되리라.

그런데 그것이 그다지도 중요하다는 걸 어른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이것은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슬픈 풍경이다. 앞 페이지의 것과 같은 풍경이지만 여러분에게 잘 보여 주기 위해 다시 한번 그린 것이다. 어린 왕자가 지상에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진 곳이 여기서다.



이 그림을 찬찬히 잘 보아두었다가 여러분이 언제고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할 때, 이와 똑같은 풍경을 꼭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혹시 그리로 지나가게 되면, 발걸음을 서두르지 말고 잠깐 별빛 밑에서 기다려 보길 간곡히 부탁한다! 그때 만일 한 어린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그가 웃고 있고 머리칼이 금빛이면,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으리라. 그러면 내게 친절을 베풀어 주길! 내가 이처럼 마냥 슬퍼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그 애가 돌아왔다고 빨리 편지를 보내 주길.....